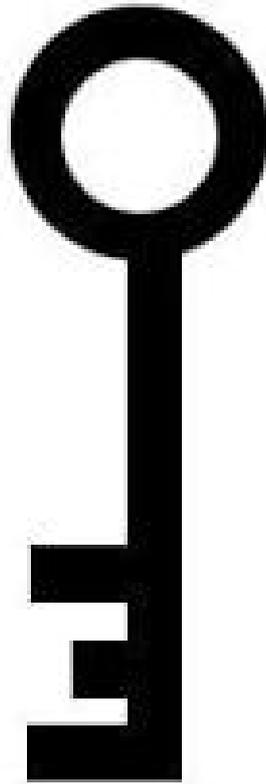


누군가 네게 역류로 다가온다면, 너는 순류를 유지하라.
너의 순류가 곧 그 사람의 역류가 된다.
- 미생 中



[F.I.N.A.L. SECRET KEY]

반응하는
Point

2020학년도 수능 대비 Final
한수 모의고사 주요 문항 분석지(5회)

#Chapter 1. 오답률 Best 5, “선택지 판단” 집중 분석

[참고] 이 문항들은 오답률이 높은 문항이자, 동시에 학생들이 공부함에 있어 의미가 있는 문항들을 선정한 것입니다. 사실 모의고사를 풀어보는 것은 낯선 문제를 보며 문제 풀이의 감을 유지한다는 것에 의미가 있기도 하지만, 동시에 이 모의고사에서 얻어갈 수 있는 것들을 얻어간다는 것에도 의미가 있습니다. 고난도 문항이라 함은 학생 개별마다의 상대성이 있기 때문에, 자신이 틀린 것과 대응하기보다는 이 ‘모의고사에서 이런 점을 얻어가야 하는구나.’ 정도의 생각으로 이 분석지를 참고하시면 좋습니다.

오답률 예측		해당 문항	
오답률 5위	31%	30번	(문학 : 현대소설) - 상황 맥락에 따른 인물 정서 추론
오답률 4위	39%	22번	(독서 : 인문) - 지문에 제시된 이론과 <보기> 이론 비교
오답률 3위	48%	39번	(독서 : 경제) - 지문 내용을 기반으로 한 <보기>의 상황 분석
오답률 2위	56%	38번	(독서 : 경제) - 핵심 내용 이해
오답률 1위	72%	36번	(독서 : 기술) - 지문 내용을 기반으로 한 <보기>의 상황 분석

[문학] 고전소설 : 박지원, ‘민옹전’ / 현대시 : 윤동주, ‘바람이 불어’ 외

[문법] 11번, 13번, 15번

[독서] 경제 지문 : 근로 장려 세제가 저소득층 근로자의 노동에 미치는 영향(해설)

기술 지문 : 항공기 여압 시스템(분석 자료 제공)

#Chapter 2. ‘영역 별 주요 지문’ 집중 분석 참고

[오답률 5위(31%) 예측] : 문학-현대소설 30번 문항

[상황 맥락에 따른 인물 정서 추론]	
[Killer-Point]	<p>30.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p> <p>① ㉠: 밖에서 꾸민 '나'의 모습을 포기하게 한다. ② ㉡: '환자'를 간병하는 '친구'의 모습을 비유적으로 나타낸다. ③ ㉢: '나'와 '명애'의 손이 몸에 닿았을 때 보인 '환자'의 반응이다. ④ ㉣: '환자'의 돌발적인 행위에 대한 '친구'의 질책이 담긴 표현이다. ⑤ ㉤: '나'가 해방감을 느끼게 되는 계기이다.</p> <p style="text-align: right;">[정답 : ④]</p>
	<p>㉣을 '부정적 상황 → 효도(표현)'에만 집중하여 '반어적 표현'으로 이해한 학생들은 틀릴 수 있을 만한 문제였다.</p> <p>소설에서 발화의 의미를 파악할 때, 맥락을 고려해서 판단해야 하는 것은 맞다. 다만 이때 맥락 안에는 그 발화가 이루어지는 공간적, 시간적 배경은 물론 발화자가 청자에게 취하고 있는 태도, 발화 당시 발화자의 정서 상태까지 모두 포함된다. 그저 상황과 표현 사이의 불일치만 보고 반어적 표현으로 해석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것이다.</p> <p>'또 효도하네'라는 발화가 나왔을 때 상황이 부정적인 것은 맞으나, 발화자인 '친구'의 얼굴은 '씩씩하고도 부드러운 자애'의 얼굴이었다. 즉 발화자에게 아들은 '부드러운 자애'로 보살펴야 하는 대상이지, '질책'의 대상이 아닌 것이다.</p> <p>이를 기반으로 '또 효도하네'라는 발화의 의미를 추론해보자면, 주변 사람에 대한 분별 능력을 잃은 아들이, 자신의 몸만큼은 어머니인 자신에게 맡기고자 하는 것에 대한 어머니로서의 '애정'을 드러내는 표현으로 보는 것이 적절하다.</p>

[유사 평가원 기출] - 2018학년도 9월 모평

㉠그렇게..... 그렇게도 배가 고프디야.
 그 넓은 운동장을 다 걸어 나올 때까지 불현듯 어머니의 입에서 새어 나온 말은 꼭 그 한마디였다. 하지만 그것은 반드시 그를 향해 묻는 말이라기보다는 녀두리에 더 가까웠다. 교문을 나선 어머니는 집으로 가는 길을 제쳐 두고 웬일인지 곧장 다릿목에서 왼쪽으로 꺾어 드는 것이었다. 저만치 구호소 식당이 눈에 들어왔을 때 그는 까닭 모를 두려움과 수치심으로 뒷걸음질을 쳤다. 그런 그를 어머니는 별안간 무서운 힘으로 잡아끌었다.

㉡가자. 아무리 없어서 못 먹고 못 입고 살더라도 나는 절대로 내 새끼를 거지나 도둑놈으로 키울 수는 없으께. 시상에..... 시상에, 돌아가신 느그 아버지가 이런 꼴을 보시면 똥이라고 그러시꼬나이.

어머니의 음성은 돌연 냉랭하게 변해 있었다. 끝내 그는 와양 울음을 터뜨려 버리고 말았다. 그러나 어머니는 기어코 구호소 식당 안의 때 묻은 널빤지 의자 위에 그를 끌어다가 앉혀 놓았다.

잠시 후 어머니가 손바닥에 받쳐 들고 온 것은 한 그릇의 국수였다. 긴 대나무 젓가락이 찢어져 있는 그것을 어머니는 그의 앞으로 밀어 놓으며 말했다.

㉢먹어라이. 어서 먹어 보란 말다이.....

어머니의 음성에는 어느새 아까의 냉랭함이 거의 지워져 있었다. 그는 몇 번 망설이다가는 젓가락을 뽑아 들고 무 조각 하나가 덩그러니 떠 있는 그 구호용 가락국수를 먹기 시작했다. 그러다가 문득 고개를 들었던 그는 그만 젓가락을 딸각 놓아 버리고 말았다. 마주 앉아서 그때까지 그를 줄곧 지켜보고 있었을 어머니의 눈에는 소리도 없이 눈물이 그득히 괴어오르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탁자 밑에 가지런히 모아져 있는 어머니의 낡은 먹고무

신을 내려다보며 그는 갑자기 목구멍이 빠근해져 옴을 느껴야 했다. 그 후, 그는 두 번 다시 그 빈민 구호소 식당 앞에서 얼쩡거리지 않았다. 아마도 그런 기억 때문이었는지는 몰라도, 두 아이의 아버지가 된 지금까지도 국수는 그에게 여전히 싫어하는 음식으로 남아 있었다.

(중략)

어머니한테 뭔가 이상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불길한 조짐을 처음으로 느끼기 시작한 것은 두 달 전쯤부터였다. 그날따라 겨울이 전에 없이 일찍 앞당겨 찾아온 듯한 늦가을 날씨로 밖은 유난히 쌀렁했다. 젓가락으로 밥알을 헤아리듯 하며 맛없는 아침상을 받고 있노라니까 아내가 심상찮은 기색으로 곁에 쪼그려 앉는 것이었다. 그녀가 미처 입을 열기도 전에 그는 짐짓 신경질적인 표정부터 준비했다. 그즈음은 마침 지난달의 봉급을 받지 못한 데다가 그달 봉급마저도 벌써 며칠째 넘기고 있던 참이었으므로, 이번에도 또 아내의 입에서 보나 마나 궁색한 소리가 튀어나오리라곤 지레짐작했던 때문이었다. 급료도 제대로 나오지 않는 직장을 뒀 하러 나다녀야 하느냐는 당연한 투정 때문에 얼마 전에도 한바탕 말다툼을 벌였던 적이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이날 아침은 그게 아니었다.

여보. 나가시기 전에 어머님 좀 잠시 들여다보세요. 암만 해도.....

아니 왜. 감기약을 지어 드렸는데도 여전히 차도가 없으시대?

며칠 전부터 몸이 편찮으시다고 누워 계시는 줄은 그도 알고 있었다. 병원에 가 보는 게 어떻겠느냐고 물었더니, 특별히 아픈 데는 없노라고, 아마도 고별인 것 같으니까 누워 있으면 곧 괜찮아질 거라고 하며 어머니는 손을 내젓던 것이었다.

그게 아니라, 저어, 암만해도 어머님이 좀 이상해지신 것 같단말예요.

그, 그건 또 무슨 소리아.

아내는 뭔가 숨기고 있는 듯한 어정쩡한 표정으로 그의 눈치를 살피고 있었다. 문득 불길한 예감이 뒤통수를 때렸다. 아무리 봐도 예전 같지가 않으시다구요. 그렇게 정신이 총총 하시던 분이 별안간 무슨 말인지도 모를 헛소리를 하시기도 하고..... 어쩌다가는 또 말짱해 보이시는 것 같다가도 막상 물어 보면 전혀 엉뚱한 대답을 하시는 거예요. 처음엔 일부러 그러시는가 했는데, 글썄 그게 아니예요.

도대체 난데없이 무슨 소릴 하고 있는 거야, 지금.

설마 어머니가 그럴 리가 있을까 싶으면서도 왠지 섬뜩한 예감에 그는 손가락을 놓고 곧장 건너가 보았다.

어머니는 이불을 덮고 누워 무얼 생각하는지 멀거니 천장만 올려다보고 있었다. 의외로 안색이 나아 보였으므로 그는 적이 맘을 놓았다. 하지만 어머니는 두 번씩이나 부르는 아들의 목소리에도 대답이 없었다. 그저 꼼짝도 하지 않고 망연한 시선을 천장의 어느 한 점에 멈춰 두고 있을 뿐이었다. 한동안 멍청하게 앉아 있던 그가 자리에서 마약 일어서려 할 때였다.

㉠찬우야!

어머니의 입에서 불쑥 그 한마디가 튀어나오는 순간 그는 가슴이 철렁했다. 직감적으로 어떤 불길한 예감이 전신을 휩싸 안는 것 같았다. 아직까지 어머니는 한 번도 그렇게 아들의 이름을 직접 부르는 적이 없었다. 적어도 그가 결혼한 후로는 그랬다. 하지만 그보다도 더 그가 놀랐던 것은 어머니의 음성에서였다. 그것은 이미 예전의 귀에 익은 음성이 아니었다. 언제나 보이지 않는 따뜻함과 부드러움으로 흘러나오곤 하던 그 목소리에는 대신 어딘가 냉랭하면서도 들떠 있는 듯한 건조함이 배어 있었다. 그 음성을 듣는 순간 그가 내심 섬찟했던 것은 바로 그 생경한 이질감 때문이었는지도 모른다. 그는 놀란 눈으로 황급히 어머니의 얼굴을 들여다보았다.

㉠찬우야이. 어서 꼬두메로 돌아가자이. 느그 아버지랑 찬세가 얼마나 기다리겠냐아. 더 추워지기 전에 싸게싸게 집으로 가야 한단 말다이.

어머니는 나직하게, 그러나 힘이 서린 목소리로 그렇게 말하는 것이었다. 그가 너무 당황하여 그 말이 무슨 뜻인지를 얼른 쉽사리 가려낼 수가 없었다.

- 임철우, 「눈이 오면」 -

45. <보기>를 참고하여 ㉠~㉣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기 >

「눈이 오면」에서는 어머니의 목소리가 발화 내용과 어우러져 '그'에게 특별한 메시지를 전달한다. 그 목소리는 '그'에게 수치심, 죄책감, 불길함, 섬찝함, 당혹감 등의 감정을 불러일으키거나 특정한 행동을 야기한다.

- ① ㉠에서 '어머니'가 넋두리에 가까운 말로 아들의 배고픔을 언급한 것은 '그'가 구호소 식당을 보았을 때 느낀 까닭 모를 두려움과 수치심으로 이어지는군.
- ② ㉡에서 '어머니'가 냉랭한 음성으로 '아버지'를 언급한 것은 '그'에게 죄책감을 불러일으켜 결국 '그'로 하여금 울음을 터뜨리게 하는군.
- ③ ㉢에서 '어머니'가 냉랭함이 사라진 음성으로 '그'에게 국수를 먹으라고 권하는 것은 '그'에게 불길함을 느끼게 하여 젓가락을 딸각 놓는 행동에 영향을 주는군.
- ④ ㉣에서 '어머니'가 생경한 이질감이 느껴지는 음성으로 '그'의 이름을 부른 것은 '그'에게 '어머니'의 변화를 인식하게 하여 섬찝함을 느끼게 하는군.
- ⑤ ㉤에서 '어머니'가 힘이 서린 목소리로 돌아가신 아버지가 있는 집으로 가자고 하는 것은 과거와 현재를 구분하지 못하는 '어머니'의 모습을 드러내어 '그'에게 당혹감을 갖게 하는군.

[정답 : ③]

국수를 먹던 어린 '그'가 '젓가락을 딸각 놓'는 행동을 한 것은 국수를 먹어 보라는 어머니의 말 때문이 아니라 '어머니'가 우는 모습을 보고 놀랐기 때문이다. '그'가 불길함을 느낀 것은 (중략) 이후, 이제는 노인이 된 '어머니'한테 '이상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불길한 조짐'을 갖게 되었기 때문이다.

[오답률 4위(39%) 예측] : 독서-인문 22번 문항

[지문에 제시된 이론과 <보기> 이론 비교]	
[Killer-Point]	<p>22. 밑줄에 나타난 철학자들과 <보기>의 ㉞를 비교하여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p> <p style="text-align: center;">— < 보기 > —</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p>㉞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들은 경험을 진리에 대한 인식을 방해하는 불확실한 것이라고 생각했다. 인식이란 주어진 현상의 원인이나 근거를 아는 것인 데 반해, 경험은 그러한 원인이나 근거를 모른 채 주어진 현상을 수동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또한 그들은 인식과 경험이 각각 이론과 실천이라는 별개의 영역에 속한다고 생각했다. 이때 이론이란 이성의 생각하는 능력을 올바른 법칙에 따라 사용하여 불변의 진리를 인식하는 것을 말한다며, 실천이란 반복을 통해 신체에 기억이 새겨지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경험은 기껏해야 몸에 습관이 배듯 숙련도를 높일 수 있을 뿐, 엄밀한 사유를 통해 추구해야 하는 진리 인식에는 오히려 방해가 된다는 것이다.</p> </div> <p>① 경험주의들과 달리 ㉞는 인식론의 차원에서 경험을 이해한 것이 아니었군. ② 실용주의자들과 ㉞는 모두 진리 인식을 추구하는 태도를 높이 평가하지 않았군. ③ 듀이는 ㉞와 달리 신체의 지각 작용뿐 아니라 정신의 사유 작용도 경험에 포함된다고 보았군. ④ 듀이와 ㉞는 모두 현상의 근거에 대한 확실한 지식을 얻기 위해 경험에 의존해야 한다고 보았군. ⑤ 듀이는 ㉞와 달리 경험을 주위 환경에 영향을 주는 좋은 경험과 주위 환경의 영향을 받는 나쁜 경험으로 구별하였군.</p> <p style="text-align: right;">[정답 : ③]</p> <p>지문에 제시된 하나 혹은 다수의 이론과 <보기>에 제시된 이론을 비교하는 문제를 만나면, 처음 <보기>를 읽을 때부터 충분한 시간을 두고 천천히 정리하면서 읽어내려가는 것이 좋다. 특히 철학 지문 같은 경우는 지문과 의미는 같으나 형태가 다른 어휘를 사용하는 경우도 많고, 사회 지문처럼 두 이론 사이의 차이점을 명확하게 짚어주지 않기 때문에, <보기>에 제시된 내용을 정확하게 정리하고 선지로 넘어가지 않으면 선지에서 과도하게 많은 시간을 쓸 위험이 있다.</p> <p>문제마다 다르기는 하겠지만, <보기> 내용을 정리하고 지문과 연결시키는 과정은 보통 엄청나게 오랜 시간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반면 <보기>에서 머리가 꼬인 상태로 선지로 넘어가서 지문-<보기>-선지 사이를 해매기 시작하면, '내가 시간을 많이 쓰고 있다'는 인식조차 못한 채 허둥대다가 시간을 허비할 가능성이 높다.</p> <p><보기>에서 제시한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들'은 경험과 인식을 철저하게 구분하였다.</p> <p>지문의 '경험주의자'들이 경험과 인식을 구분하면서도 '경험'을 '인식'에 이르는 통로라고 하며 둘 사이의 긍정적 연관 관계를 인정했던 반면,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들'은 '경험'이 진리에 대한 '인식'을 방해하는 것이라고 하며 둘을 대립적인 위치에 두었다.</p> <p>또한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들'은 '인식'을 '이론'과, '경험'을 '실천'과 연결하였는데, 이때 '이론'은 '생각하는 능력'과, '실천'은 '신체'와 연결된다.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들'은 '신체'와 '사유' 역시 철저하게 구분하여 제시하고 있는 것이다.</p> <p>반면 실용주의자인 '듀이'는 '경험'을 '우리의 생각과 행동을 통해 주위 환경을 변화시키는 상호 작용'이라고 보았으므로, '정신의 사유', 즉 '생각' 역시 '경험'의 일부로 보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p>

[유사 평가원 기출] - 2019학년도 6월 모평

17세기 초부터 유입되기 시작한 서학(西學) 서적에 담긴 서양의 과학 지식은 당시 조선의 지식인들에게 적지 않은 지적 충격을 주며 사상의 변화를 이끌었다. 하지만 19세기 중반까지 서양 의학의 영향력은 천문·지리 지식에 비해 미미하였다. 일부 유학자들이 서양 의학 서적들을 읽었지만, 이에 대해 논평을 남긴 인물은 극히 제한적이였다.

이런 가운데 18세기 실학자 이익은 주목할 만한 인물이다. 그는 「서국의(西國醫)」라는 글에서 아담 샴이 쓴 『주제군징(主制群徵)』의 일부를 채록하면서 자신의 생각을 제시하였다. 『주제군징』에는 당대 서양 의학의 대변동을 이끈 근대 해부학 및 생리학의 성과나 그에 따른 기계론적 인체관은 담기지 않았다. 대신 기독교를 효과적으로 전파하기 위해 신의 존재를 증명하려 했던 로마 시대의 생리설, 중세의 해부 지식 등이 실려 있었다. 한정된 서양 의학 지식이었지만 이익은 그 우수성을 인정하고 내용을 부분적으로 수용하였다. 뇌가 몸의 운동과 지각 활동을 주관한다는 아담 샴의 설명에 대해, 이익은 몸의 운동을 뇌가 주관한다는 것은 긍정하였지만, 지각 활동은 심장이 주관한다는 전통적인 심주지각설(心主知覺說)을 고수하였다.

이익 이후에도 서양 의학이 조선 사회에 끼친 영향은 두드러지지 않았다. 당시 유학자들은 서양 의학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였고, 의원들의 관심에서도 서양 의학은 비껴나 있었다. 당시에 전해진 서양 의학 지식은 내용 면에서도 부족했을 뿐 아니라, 지구가 둥글다거나 움직인다는 주장만큼 충격적이지는 않았다. 서양 해부학이 야기하는 윤리적 문제도 서양 의학의 영향력을 제한하는 요인으로 작용하였으며, 서학에 대한 조정(朝廷)의 금지 조치도 걸림돌이었다. 그러던 중 19세기 실학자 최한기는 당대 서양에서 주류를 이루고 있던 최신 의학 성과를 담은 흠슨의 책들을 접한 후 해부학 전반과 뇌 기능을 중심으로 문제의식을 본격화하였다. 인체에 대한 이전 유학자들의 논의가 도덕적 차원에 초점이 있었던 것과 달리, 그는 지각적·생리학적 기능에 주목하였다.

최한기의 인체관을 함축하는 개념 중 하나는 '몸기계'였다. 그는 이 개념을 본격적으로 사용하기에 앞서 인체를 형체와 내부 장기로 구성된 일종의 기계로 파악하고 있었다. 이러한 생각은 『전체신론(全體新論)』 등 흠슨의 저서를 접한 후 더 분명해져서 인체를 복잡한 장치와 그 작동으로 이루어진 몸기계로 형상화 하면서도, 인체가 외부 동력에 의한 기계적 인과 관계에 지배되는 것이 아니라 그 자체가 생명력을 가지고 자발적인 운동을 한다고 보았다. 이는 인체를 '신기(神氣)'와 결부하여 이해한 결과였다. 기계적 운동의 인과 관계를 설명하려면 원인을 찾는 과정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지게 된다. 따라서 이러한 무한소급을 끝맺으려면 운동의 최초 원인을 상정해야만 한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료 선교사인 흠슨은 창조주와 같은 질적으로 다른 존재를 상정하였다. 기독교적 세계관을 부정했던 최한기는 인체를 구성하는 신기를 신체 운동의 원인으로 규정 하여 이 문제를 해결하려 하였다.

최한기는 『전체신론』에 수록된, 뇌로부터 온몸에 뻗어 있는 신경계 그림을 접하고, 신체 운동을 주관하는 뇌의 역할과 중요성을 인정하였다. 하지만 뇌가 운동뿐만 아니라 지각을 주관한다는 흠슨의 뇌주지각설(腦主知覺說)에 관심을 기울이면서도, 뇌주지각설은 완전한 체계를 이루기에 불충분하다고 보았다. 뇌가 지각을 주관하는 과정을 창조주의 섭리로 보고 지각 작용과 기독교적 영혼 사이의 연관성을 부각하려 한 『전체신론』의 견해를 부정하고, 대신 '심'이 지각 운동을 주관한다는 심주지각설이 더 유용하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종래의 심주지각설을 그대로 수용한 것은 아니었다. 기존의 심주지각설이 '심'을 심장으로 보았던 것과 달리 그는 신기의 '심'으로 파악하였다. 그에 따르면, 신기는 신체와 함께 생성되고 소멸되는 것으로, 뇌나 심장 같은 인체 기관이 아니라 몸을 구성하면서 형체가 없이 몸속을 두루 돌아다니는 것이다. 신기는 유동적인 성질을 지녔는데 그 중심이 '심'이다. 신기는 상황에 따라 인체의 특정 부분에 더 높은 밀도로 몰린다. 그래서 특수한 경우에는 다른 곳으로 중심이 이동하는데, 신기가 균형을 이루어야 생명 활동과 지각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다. 그는 경험 이전에 아무런 지각 내용을 내포하지 않고 있는 신기가 감각 기관을 통한 지각 활동에 의해 외부 세계의 정보를 받아들여 기억으로 저장한다고 파악하였다. 신기는 한 몸을

주관하며 그 자체가 하나로 통합되어 있기 때문에 감각을 통합할 수 있으며, 지각 내용의 종합과 확장, 곧 스스로의 사유를 통해 지각 내용을 조정하고, 그러한 작용에 적응하여 온갖 세계의 변화에 대응할 수 있다고 보았다.

최한기의 인체관은 서양 의학과 신기 개념의 접합을 통해 새롭게 정립된 것이었다. 비록 양자 사이의 결합이 완전하지는 않았지만, 서양 의학을 맹신하지 않고 주체적으로 수용하여 정합적인 체계를 이루고자 한 그의 시도는 조선 사상사에서 주목할 만한 성취라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20. 밑글의 '최한기'와 <보기>의 '데카르트'를 비교하여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 보기 > —

서양 근세의 철학자 데카르트는 물질과 정신을 구분하여, 물질은 공간을 차지한다는 특징을 갖는 반면 정신은 사유라는 특징을 갖는다고 보았다. 물질의 기계적 운동을 옹호했던 그는 정신이 깃든 곳은 물질의 하나인 두뇌이지만 정신과 물질은 서로 독립적이라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정신과 물질이 영향을 주고 받음을 설명할 수 없다는 비판을 받았다.

- ① 데카르트의 '정신'과 달리 최한기의 '신기'는 신체와 독립적이지 않겠군.
- ② 데카르트와 최한기는 모두 인간의 사고 작용이 일어나는 곳은 두뇌라고 보았겠군.
- ③ 데카르트의 '정신'과 최한기의 '신기'는 모두 그 자체로는 형체를 갖지 않는 것이겠군.
- ④ 데카르트와 달리 최한기는 인간의 사고가 신체와 영향을 주고받음을 설명할 수 없다는 비판을 받지는 않겠군.
- ⑤ 데카르트의 견해에서도 최한기에서처럼 기계적 운동의 최초 원인을 상정하면 무한 소급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군.

[정답 : ②]

<보기>의 데카르트는 정신과 물질은 서로 독립적이라고 하였지만, 정신이 깃든 곳은 물질의 하나인 두뇌라고 하였으므로, 인간의 사고 작용이 일어나는 곳은 두뇌라고 보았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최한기는 신체 운동을 주관하는 뇌의 역할과 중요성을 인정했지만 뇌가 운동뿐만 아니라 지각을 주관한다는 흄슨의 뇌주지각설보다 '심'이 지각 운동을 주관한다는 심주지각설이 더 유용하다고 주장했으므로, 최한기는 인간의 사고 작용이 일어나는 곳을 두뇌라고 보지 않았을 것이다.

[오답률 3위(약 48%) 예측] : 독서-경제 39번 문항 (구체적인 것은 지문 분석 때!)

[지문 내용을 기반으로 한 <보기>의 상황 분석]

39. 밑글을 바탕으로 <보기>에 대해 반응한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 보 기 >

A국 정부는 근로 장려 세제를 도입하면서, 저소득 근로자들을 연간 근로 소득이 1,000만 원 이하인 점증 구간, 1,000만 원을 초과하고 1,500만 원 이하인 평탄 구간, 1,500만 원을 초과하고 2,000만 원 이하인 점감 구간으로 분류하고 아래의 표와 같이 근로 장려금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소득 구간	근로 장려금
점증 구간	소득의 10%
평탄 구간	100만 원
점감 구간	(2,000만 원 - 근로 소득)의 20%

[Killer-Point]

- ① A국의 저소득 근로자들은 최대 100만 원까지 근로 장려금을 받을 수 있고 최대 2,000만 원까지 실제 소득을 올릴 수 있겠군.
- ② A국에서 일률적으로 100만 원의 근로 장려금을 지급받는 구간의 근로자들은 실제 소득이 증가하므로 여가의 기회비용이 낮아지겠군.
- ③ A국의 점감 구간의 근로자 중에는 소득이 높은 근로자일수록 지급받는 근로 장려금의 액수가 줄어들어 실제 소득이 역전되는 경우도 있겠군.
- ④ A국 정부에서 근로 장려금을 지급해도 근로 소득이 1,000만 원을 초과하는 근로자들에게는 근로 소득이 1,000만 원 이하인 근로자들과 달리 대체 효과가 발생하지 않겠군.
- ⑤ 근로 장려 세제를 통해 A국의 저소득 근로자 전체의 근로 시간이 증가하기 위해서는 근로 소득이 1,000만 원 이하인 근로자들에게 발생하는 소득 효과가 대체 효과보다 커야겠군.

[정답 : ①]

'점증 구간 / 평탄 구간 / 점감 구간'의 개념 자체는 그리 어렵지 않으나, 선지 판단 과정에서 거쳐야 할 사고 과정이 다소 복잡해서 어려울 수 있는 문제였다.

1번 선지를 정확하게 판단해서 답을 고르고 넘어갈 수 있었다면 다행이지만, 1번 선지에서 확신을 가지지 못하고 나머지 선지들을 하나하나 판단하려던 학생들은 시간 소비가 꽤 있었을 것이다.

정답 선지인 1번 선지는 판단하기가 그리 어렵지 않았다. 다만 거쳐야 할 사고 과정이 다소 많았을 뿐이다. 먼저 점증 구간의 최대 근로 소득은 1,000만원이므로, 점증 구간에서 받을 수 있는 최대 장려금은 100만원이다. 평탄 구간은 일괄적으로 100만원 지급이니 넘어가고, 소득이 1,500만원을 넘어가면 점감 구간으로 넘어가게 되는데, 이때에도 근로 장려금은 100만원 이상은 받을 수 없다.

점감 구간은 소득이 커질수록 근로 장려금이 낮아지기 때문에, 점감 구간 내에서 가장 적은 소득을 올리는 근로자가 얼마의 장려금을 수령하는지를 따져보면 최대 장려금 액수를 알 수 있다. 점감 구간은 1,500만원을 초과하는 저소득 근로자들이 포함된 구간이므로 1,500만원의 소득을 가진 근로자는 점감 구간에 포함될 수 없지만, 계산 편의상 연간 소득 1,500만원의 근로자도 점감 구간에 포함된다고 하자. 이 근로자가 받는 장려금의 액수는 실제 점감 구간에 속한 근로자가 받는 액수보다

	<p>무조건 클 수밖에 없는데, 1,500만원의 연간 소득을 가진 근로자가 점감 구간에서 받을 수 있는 장려금이 100만원이다. 따라서 점감 구간에서도 100만원 이상의 근로 장려금을 받는 근로자는 있을 수 없다.</p> <p>다음으로 실제 소득이 2,000만원을 넘을 수 있느냐 여부이다. 점감 구간에서 가장 높은 근로 소득을 올리는 근로자가 2,000만원의 근로 소득을 올리는데, 이 근로자는 근로 장려금을 받을 수 없다. 따라서 실제 소득도 2,0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이보다 적은 근로 소득을 올리는 근로자는 2,000만원과의 차액에서 20%만을 근로 장려금으로 받을 뿐이므로, 그 역시 실제 소득이 2,000만원을 넘을 수 없다.</p> <p>예를 들어 1,990만원의 근로 소득을 올리는 근로자는 2,000만원과의 차액인 10만원의 20%만을 장려금으로 받으므로 2만원을 장려금으로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실제 소득은 1,992만원이 된다. 여기서 근로 소득이 더 커질수록 받게 되는 장려금의 액수는 반대로 작아질 것이니, 실제 소득은 2,000만원을 넘을 수 없게 되는 것이다.</p>
--	---

[오답률 2위(약 56%) 예측] : 독서-경제 38번 문항

[핵심 내용 이해]	
	<p>38. ㉠,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p> <p>① ㉠이 발생하려면 시간당 임금이 변화해야 한다. ② ㉡은 여가의 기회비용이 낮아지면 발생할 수 있다. ③ ㉢은 근로자의 실제 소득이 증가하면 발생할 수 있다. ④ ㉣은 여가를 누리는 데 소요되는 비용이 줄어들면 발생할 수 있다. ⑤ ㉠과 ㉢은 언제나 근로 시간의 증감에 서로 반대되는 영향을 미친다.</p> <p style="text-align: right;">[정답 : ⑤]</p>
[Killer-Point]	<p>뭔가 아닐 것 같아서 5번 선지를 고른 학생들도 꽤 있었을 것 같다. 우리의 경험에 따르면 독서든 문학이든 선지에서 너무 단정적인 진술이 나오면 적절하지 않은 선지였던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다. 만약 5번 선지를 골라서 맞추기는 했으나 확실한 근거를 가지고 택하지 않았었다면, 다시 한 번 꼼꼼하게 읽어보고 왜 틀린 것인지 고민해보는 시간을 가져보기 바란다.</p> <p>지문에 따르면 '소득 효과'는 시간당 임금이 상승했을 때만 발생한다. 즉 시간당 임금의 상승은 소득효과 발생의 전제 조건이 되는 것이다. 반면 '대체 효과'는 시간당 임금이 상승하는 경우와 하락하는 경우 모두 발생할 수 있다. 시간당 임금이 상승하는 경우에 대체 효과는 근로 시간의 증가를 야기하지만, 시간당 임금이 하락하는 경우에는 근로 시간의 감소를 야기한다. 따라서 대체 효과는 근로 시간의 증가와 감소 모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소득 효과와 반대되는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없다.</p> <p>하나 아쉬운 것은 문제에서 상황을 충분히 제한해주지 않았다는 것이다. 대체 효과와 소득 효과가 모두 일어나는 상황은 시간당 임금이 상승하는 상황밖에 없고, 그 경우에는 두 효과가 반대되는 방향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이 맞게 되어 5번 선지도 맞는 선지가 된다. 만약 이렇게 생각해서 5번 선지를 넘긴 학생이 있다면, 이 문제는 정답에 너무 신경 쓰지 말고 넘어가면 된다.</p>

[유사 평가원 기출] - 2019학년도 9월 모평

대한민국 정부가 해외에서 발행한 채권의 CDS 프리미엄은 우리가 매체에서 자주 접하는 경제 지표의 하나이다. 이 지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채권의 '신용 위험'과 '신용 파산 스와프(CDS)'의 개념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채권은 정부나 기업이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발행하며 그 가격은 채권이 매매되는 채권 시장에서 결정된다. 채권의 발행자는 정해진 날에 일정한 이자와 원금을 투자자에게 지급할 것을 약속한다. 채권을 매입한 투자자는 이를 다시 매도하거나 이자를 받아 수익을 얻는다. 그런데 채권 투자에는 발행자의 지급 능력 부족 등의 사유로 이자와 원금이 지급되지 않을 가능성이 신용 위험이 수반된다. 이에 따라 각국은 채권의 신용 위험을 평가해 신용 등급으로 공시하는 신용 평가 제도를 도입하여 투자자를 보호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신용 평가 제도에서는 원화로 이자와 원금의 지급을 약속한 채권 가운데 발행자의 지급 능력이 최상급인 채권에 AAA라는 최고 신용 등급이 부여된다. 원금과 이자가 지급되지 않아 부도가 난 채권에는 D라는 최저 신용 등급이 주어진다. 그 외의 채권은 신용 위험이 커지는 순서에 따라 AA, A, BBB, BB 등 점차 낮아지는 등급 범주로 평가된다. 이들 각 등급 범주 내에서도 신용 위험의 상대적인 크고 작음에 따라 각각 '- '나 '+ '를 붙이거나 하여 각 범주가 세 단계의 신용 등급으로 세분되는 경우가 있다. 채권의 신용 등급은 신용 위험의 변동에 따라 조정될 수 있다. 다른 조건이 일정한 가운데 신용 위험이 커지면 채권 시장에서 해당 채권의 가격이 떨어진다.

CDS는 채권 투자자들이 신용 위험을 피하려는 목적으로 활용하는 파생 금융 상품이다. CDS 거래는 '보장 매입자'와 '보장 매도자' 사이에서 이루어진다. 여기서 '보장'이란 신용 위험으로부터의 보호를 뜻한다. 보장 매도자는, 보장 매입자가 보유한 채권에서 부도가 나면 이에 따른 손실을 보상하는 역할을 한다. CDS 거래를 통해 채권의 신용 위험은 보장 매입자로부터 보장 매도자로 이전된다. CDS 거래에서 신용 위험의 이전이 일어나는 대상 자산을 '기초 자산'이라 한다.

가령 은행 ㉠같은, 기업 ㉡이 발행한 채권을 매입하면서 그것의 신용 위험을 피하기 위해 보험 회사 ㉢명과 [A] CDS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이때 기초 자산은 을이 발행한 채권이다.

보장 매도자는 기초 자산의 신용 위험을 부담하는 것에 대한 보상으로 보장 매입자로부터 일종의 보험료를 받는데, 이것의 요율이 CDS 프리미엄이다. CDS 프리미엄은 기초 자산의 신용 위험이나 보장 매도자의 유사시 지급 능력과 같은 여러 요인의 영향을 받는다. 다른 요인이 동일한 경우, 기초 자산의 신용 위험이 크면 CDS 프리미엄도 크다. 한편 보장 매도자의 지급 능력이 우수할수록 보장 매입자는 유사시 손실을 보다 확실히 보전받을 수 있으므로 보다 큰 CDS 프리미엄을 기꺼이 지불하는 경향이 있다. 만약 보장 매도자가 발행한 채권이 있다면, 그 신용 등급으로 보장 매도자의 지급 능력을 판단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다른 요인이 동일한 경우, 보장 매도자가 발행한 채권의 신용 등급이 높으면 CDS 프리미엄은 크다.

22. [A]의 ㉠~㉣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은 기초 자산을 보유하지 않는다.
- ② ㉠은 기초 자산에 부도가 나면 손실을 보상하는 역할을 한다.
- ③ ㉡은 신용 위험을 기피하는 채권 투자자이다.
- ④ ㉢은 신용 위험을 부담하는 보장 매도자이다.
- ⑤ ㉣은 기초 자산에 부도가 나야만 이득을 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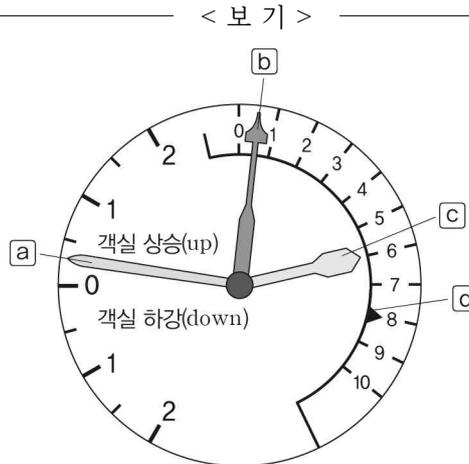
[정답 : ④]

보장 매도자는 보장 매입자가 보유한 채권에서 부도가 나면 손실을 보상하여, 신용 위험을 부담한다. 이를 고려할 때 [A]에서 갑은 신용 위험을 피하기 위해 병과 CDS 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갑은 보장 매입자, 을은 보장 매도자에 해당한다.

[오답률 1위(약 72%) 예측] : 독서-기술 36번 문항

[지문 내용을 기반으로 한 <보기>의 상황 분석]

36. <보기>는 민간 항공기의 조종석 계기판을 도식화한 것이다. 뒷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 * 왼쪽 눈금을 가리키는 [a]는 객실 상승(하강)률을 나타내는 바늘이며, 눈금에 적힌 숫자의 단위는 1,000 fpm이다.
- * 오른쪽 눈금을 가리키는 [b]와 [c]는 각각 객실 차압과 객실 고도를 나타내는 바늘이며, 눈금에 적힌 숫자의 단위는 각각 psi와 1,000피트이다.
- * [d]는 조종사가 설정한, 동압 모드에 적용되는 객실 고도를 나타낸다.
(단, 동압 모드가 동차압 모드로 자동 변환되도록 하는 객실 차압은 6 psi로 설정되었다.)

[Killer-Point]

- ① [a]가 0의 위쪽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아 항공기의 객실 기압이 상승하는 중임을 알 수 있군.
- ② [b]가 0의 오른쪽을, [c]가 6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아 항공기의 현재 고도가 해발 6천 피트보다 낮다는 것을 알 수 있군.
- ③ 동압 모드가 활성화된 상태라면, [c]가 [a]에 이른 다음에는 항공기가 상승하는 도중에 [a]가 0을 가리키는 경우가 없겠군.
- ④ 동압 모드가 활성화된 상태라면, [b]가 6을 가리키는 순간 동차압 모드로 변환되고 나서는 [c]가 8보다 큰 숫자를 가리키는 경우도 생길 수 있겠군.
- ⑤ 동압 모드가 활성화된 상태이고 [a]가 계속 0.5 이하의 눈금을 가리킨다면, [c]가 [d]에 이를 때까지 항공기의 실제 고도는 1분에 500피트 이상 상승하지 않겠군.

[정답 : ④]

이 문제 역시 사용되는 개념 자체는 그리 어렵지 않으나, 거쳐야 할 사고 과정이 많아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는 문제였다. 이런 문제는 올라가야 할 계단의 수가 많은 것뿐이지 길이 어려운 것은 아니니, 각 단계를 차분하게 밟아나가기만 하면 충분히 정답을 고를 수 있다. 동압 모드가 활성화된 상태에서, [a]객실차압이 6(6psi)를 가리키는 순간 동차압 모드가 활성화된다. 그리고 이때부터 여압 시스템은 객실 기압과 외부 기압의 차이를 일정하게 유지하기 시작한다. 문제는 이 상태에서 객실 고도가 8000피트를 넘을 수 있느냐 여부인데, 상황을 가정해서 생각해보면 의외로 간단하게 풀린다.

동차압 모드가 활성화되기 전 순간 객실 고도가 8000피트, 객실 기압이 10.9psi였다고 하자. 항공기의 실제 고도가 계속 높아지면서 외부 기압이 계속 떨어져 외부 기압이 4.9psi, 즉 객실 기압의 차이가 6psi가 되면 동차압 모드가 활성화된다. 이때 항공기의 실제 고도가 계속 높아지게 되면 외부의 기압은 계속해서 떨어지게 된다.

그런데 동차압 모드가 활성화된 상태에서 여압 시스템은 객실 기압과 외부 기압의 차이를 6psi로 일정하게 유지하려고 할 것이므로, 외부 기압이 낮아지는 것에 맞춰 객실 내부 기압도 낮출 수밖에 없다. 동차압 모드가 활성화된 이후 항공기의 상승으로 인해 외부 기압이 2.9psi까지 떨어지게 되면 객실 기압을 이에 맞춰 8.9psi까지 떨어뜨려야 하고, 객실 고도는 8000피트보다 높아지게 된다.

[유사한 사례] - 2017년도 10월 학평

기계나 설비 등이 목적에 맞게 작동하도록 온도, 압력, 유량, 회전 속도 등의 물리량을 조절하는 기술을 제어 기술이라고 한다. 제어 대상의 현재 물리량의 크기를 잰 측정값을 원하는 목표인 설정값에 일치시키기 위해, 출력되는 조작량을 조절하는 제어 기술에는 여러 방식이 있다. 그중 가장 간단한 방식은 'on/off 스위치 방식'으로, 물의 온도를 맞출 때 사용되는 보일러의 온도 조절 장치에 흔히 활용된다. 이 장치에서는 현재 온도가 원하는 온도보다 낮으면 스위치가 on되어 가열기에 전원이 공급되며, 원하는 온도보다 높으면 스위치가 off되어 가열기에 공급되는 전원이 차단된다. 스위치가 on일 때에는 100%에 해당하는 조작량이 출력되고, 스위치가 off일 때에는 조작량이 0%가 된다. 가열기가 처음 작동될 때 수온을 올리기 위해 on 상태를 유지하는데, 어느 순간 수온이 설정값을 넘는 '오버슈트'가 발생한다. 오버슈트가 발생하면 시스템에 무리를 줄 수 있으므로 스위치를 반복적으로 on과 off하여 현재 온도를 설정값에 이르도록 한다. 수온은 압력이나 유량처럼 물리량의 변화가 연속적인 아날로그적 속성을 지니므로 수온이 상승하여 스위치를 off로 바꾸었다고 해서 금세 낮아지지는 않는다. 따라서 스위치를 반복적으로 on과 off하면 설정값을 기준으로 수온이 위아래로 일정하게 오르내리는 '헌팅'이 발생한다.

on/off 스위치 방식은 오버슈트와 헌팅이 발생하여 제어 대상의 물리량을 정밀하게 제어하기 어렵다. 이런 on/off 스위치 방식의 결점을 보완하기 위해 'PID 제어 방식'이 활용된다. PID 제어 방식은 P(비례) 제어, I(적분) 제어, D(미분) 제어를 모두 활용하여 제어 대상의 물리량을 정밀하게 제어한다. 그런데 목적에 따라 P 제어 방식, PI 제어 방식, PD 제어 방식이 활용되는 경우도 있다.

P 제어는 설정값의 위아래에 일정한 비례대를 설정하여, 비례대 안에서 설정값과 측정값의 편차에 비례하는 조작량을 출력한다. 예컨대 P 제어가 활용된 보일러의 온도 조절 장치에서 현재의 온도가 비례대 하한선 아래에 있을 경우 현재 온도가 비례대 하한선에 이를 때까지는 100%의 조작량이 출력되어 스위치를 on 상태로 유지한다. 그러다 현재 온도가 비례대 하한선보다 높아지면 비례 주기를 갖게 되는데, 각 주기에서는 스위치의 on과 off 동작이 반복된다. 즉, 비례대 하한선을 넘은 현재 온도가 설정값에 이르기 전까지는 on 시간이 off 시간보다 긴 동작이 주기적으로 반복되는 것이다. 현재 온도가 설정값에 도달하면 50%의 조작량이 출력되어 on과 off 시간이 1:1인 동작이 반복된다. 현재 온도가 설정값보다 오르면 off 시간이 on 시간보다 긴 동작이 주기적으로 반복되고, 현재 온도가 비례대 상한선을 넘으면 off 상태를 유지한다. 이처럼 P 제어를 활용하면 측정값을 설정값에 정밀하게 근접시킬 수 있으므로 on/off 스위치 방식만 활용할 때보다 헌팅이 크게 줄어든다. 그러나 P 제어에서는 측정값이 일정하게 유지되는 안정 상태가 되어도 설정값에 대하여 일정한 오차가 설정값의 위 또는 아래에 필연적으로 발생하는데, 이를 '잔류편차'라 한다. 보일러의 온도 조절 장치에 P 제어가 활용될 때, 비례대를 넓게 설정할수록 가열을 위한 on과 off의 반복 동작이 시작되는 온도가 낮아지므로 현재 온도가 설정값에 근접하는 시간이 길어지고 잔류편차가 커지지만 헌팅은 거의 발생하지 않는다. 반면에 비례대를 좁게 설정할수록 현재 온도가 설정값에 근접하는 시간은 짧아지고 잔류편차가 작아지지만 헌팅이 발생하기 쉽다.

I 제어를 P 제어와 같이 활용하면 잔류편차를 없앨 수 있어 측정값이 설정값에 거의 근접하게 된다. PI 제어의 적분 동작은 측정값과 설정값 사이의 편차의 적분값에 비례하는 조작량을 출력하는 것으로, 적분 동작의 강도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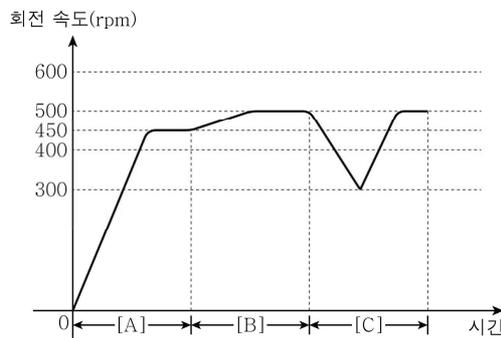
나타내는 적분 시간을 통해 동작의 세기를 조절한다. 적분 시간을 짧게 하면 제어 대상의 상태 변화를 수정하는 동작이 강해져 잔류편차를 짧은 시간에 없앨 수 있지만 헌팅이 발생하는 원인이 될 수 있다. 반대로 적분 시간을 길게 하면 수정 동작이 약해져 헌팅은 발생하지 않지만, 잔류편차를 없애는 데 긴 시간이 걸린다.

그런데 P 제어나 PI 제어만 활용할 경우에는 외부 충격이나 진동 등이 발생하여 제어 대상의 상태가 급격히 변화할 때 측정값이 설정값으로 돌아가는 데 긴 시간이 걸린다. 이때 D 제어를 활용하면 빠르게 설정값으로 돌아갈 수 있다. 외부 충격이나 진동 등이 발생하면 측정값과 설정값 사이에 편차가 커지는데, PD 제어나 PID 제어의 미분 동작은 측정값과 설정값 사이의 편차가 변화하는 속도에 비례하여 조작량을 출력하는 것이다. 미분 동작의 세기는 미분 시간을 통해 조절하는데, 미분 시간을 짧게 하면 제어 대상의 상태 변화를 수정하는 동작이 약해져 측정값이 설정값까지 도달하는 시간은 길어지지만 오버슈트는 발생하지 않는다. 반면, 미분 시간을 길게 하면 수정 동작이 강해져 측정값이 설정값에 도달하는 시간은 짧아지지만 오버슈트가 발생하기 쉽다.

35.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탐구한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 보 기 >

다음의 그래프는 'PID 제어 방식'의 효과를 확인하기 위한 실험에서 모터 회전 속도를 측정한 결과이다. [A]에서는 P 제어, [B]에서는 PI 제어, [C]에서는 PID 제어를 활용하였다. (단, 설정값은 500 rpm*, 비례대는 400 ~ 600 rpm, 잔류편차는 50 rpm이다.)



* rpm : 1분당 회전 속도를 표시하는 단위.

- ① [A]에서 비례대가 430 ~ 570 rpm으로 수정되면 잔류편차는 50 rpm보다 크겠구나.
- ② [B]에서 헌팅이 발생했을 때, 현재보다 적분 시간을 짧게 수정하면 헌팅의 발생을 막을 수 있겠구나.
- ③ [B]에서 현재보다 적분 시간을 길게 하면 450 rpm에서 500 rpm에 도달하는 시간이 현재보다 더 짧아지겠구나.
- ④ [C]에서 현재보다 미분 시간을 짧게 하면 300 rpm에서 500 rpm에 도달하는 시간이 현재보다 더 길어지겠구나.
- ⑤ [C]에서 미분 동작으로 오버슈트가 발생했을 때, 현재보다 미분 시간을 길게 수정하면 오버슈트를 막을 수 있겠구나.

[정답 : ④]

[C]에서 PID 제어를 할 때, 미분 시간을 짧게 하면 측정값이 설정값에 이르는 시간이 길어진다.

#Chapter 2. “영역 별 주요 문항/지문” 집중 분석 - ① 문법

[참고] 문법의 경우 문제를 푸는 것도 중요하지만 풀고 나서 자신이 개념을 얼마나 정확하게 알고 있는지 점검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 문항을 풀기 위해 알아야 하는 개념들을 스스로 점검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11번][문제를 풀기위해 알아야 할 개념 정리]

음운의 변동

음운 변동의 유형

- ① 교체 : 어떤 음운이 다른 음운으로 바뀌는 음운 변동 (A+B → A+C) 음운 개수가 변하지 않는다.(+0)
- ② 탈락 : 어떤 음운이 없어지는 음운 변동 (A+B → A) 음운 개수가 하나 준다.(-1)
- ③ 첨가 : 새로운 음운이 생기는 음운 변동 (A+B → A+'C'+B) 음운 개수가 하나 늘다.(+1)
- ④ 축약 : 두 음운이 하나로 합쳐지는 음운 변동 (A+B → C) 음운 개수가 하나 준다.(-1)

- ① 동화 : 한 음운이 다른 음운의 성질을 닮아 가는 음운 현상
- ② 연음 : 한 음절의 끝 자음이 모음으로 시작되는 뒤 음절의 초성으로 이어져 소리 나는 것

[참고] 교체, 첨가, 탈락, 축약과 동화는 그 층위가 다른 것이며, 모든 교체는 동화가 아니지만, 모든 동화는 교체이다.

[조음 방법 동화]

1. 유음화 : ‘ㄴ’이 앞이나 뒤에 오는 유음 ‘ㄹ’의 영향으로 유음 ‘ㄹ’로 바뀌는 현상

비음	환경	결과	예시
ㄴ	ㄹ 앞이나 뒤	[ㄹ]	신라 → [실라], 물난리 → [물랄리], 뚫는 → [뚫는 → 뚫른]

2. 비음화

① 비음(동)화 : 파열음 ‘ㄱ, ㄷ, ㅂ’이 비음 ‘ㄴ, ㄹ’ 앞에서 비음 ‘ㅇ, ㄴ, ㄹ’으로 바뀌는 현상

파열음	환경(비음)	결과	예시
ㄱ	ㄴ, ㄹ 앞	[ㅇ]	국물[궁물], 낚는다[낙는다→낭는다], 부엌문[부억문→부영문]
ㄷ	ㄴ, ㄹ 앞	[ㄴ]	닫는[단는], 걸모양[견모양→건모양], 쫓는[죃는→죃는]
ㅂ	ㄴ, ㄹ 앞	[ㅁ]	밤물[밤물], 앞니[압니→암니], 값만[갑만→감만]

② ‘ㄹ’의 비음화 : ‘ㄹ’이 다른 자음 뒤에서‘ㄴ’으로 바뀜(①과 구분할 필요는 없다.)

유음	환경	결과	예시
ㄹ	ㄹ 이외의 자음 뒤	[ㄴ]	담력[담녁], 종로[종노], 대통령[대:통녕], 협력[협녁→협녁], 막론[막논→망논]

3. 구개음화 : 받침 'ㄷ, ㅌ(ㄸ)'인 형태소가 모음 'ㅣ'나 반모음 'ㅣ'로 시작되는 형식 형태소와 만나 'ㄷ, ㅌ'이 'ㅈ, ㅊ'으로 바뀌는 현상

· 동화는 발음의 편의를 위한 현상으로, 어떤 음이 인접해 있는 음과 같거나 비슷하게 바뀌는 현상이다. 모음 'ㅣ'와 가장 가까운 위치에서 발음되는 자음이 구개음(경구개음)인데, 'ㅣ'와 거리가 먼 'ㄷ, ㅌ'이 'ㅣ'와 거리가 가까운 'ㅈ, ㅊ'으로 발음되어 'ㅣ'와 조음 위치가 비슷하게 바뀐 것이므로 구개음화는 자음이 모음의 조음 위치에 동화된 현상이다.

받침	환경	결과	예시
ㄷ, ㅌ	'ㅣ'나 반모음 'ㅣ'로 시작되는 형식 형태소	[ㅈ, ㅊ]	굳이 → [구지], 발이 → [바치], 닫히다 → [다티다 → 다치다]

[참고 1] 구개음화는 ① 교체 / ② 동화 / ③ 조음 방법, 조음 위치가 둘 다 바뀌는 것이다.

[참고 2] 구개음화는 ① 통시적 변화 ② 자음 축약과의 비교(닫히다[다치다] vs 꽃히다[꼬치다])까지 알아두면 좋다.

[조음 위치 동화] (조음위치 동화는 표준 발음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1) 연구개음화 : 'ㄴ, ㅁ' 혹은 'ㄷ, ㅌ'이 연구개음 'ㄱ'에 동화되어 각각 연구개음 'ㅇ'과 'ㄱ'으로 발음되는 현상
예) 손가락[송까락], 감기[강기]

(2) 양순음화 : 치조음 'ㄷ, ㄴ'이 양순음에 동화되어 각각 양순음 'ㅂ'과 'ㅁ'으로 발음되는 현상
예) 문법[문뻬], 꽃밭[꼬뻬]

[문제와 관련된 기타 음운 변동]

1. 음절 끝소리 규칙 : 받침소리로 'ㄱ, ㄴ, ㄷ, ㄹ, ㅁ, ㅂ, ㅇ' 이외의 자음이 이 일곱 자음 중 하나로 바뀌는 현상

· 어말 또는 자음으로 시작하는 형태소 앞 : 음절 끝소리가 일곱 자음 중 하나로 발음.

· 모음으로 시작하는 실질 형태소 앞 : 음절 끝소리가 일곱 자음 중 하나로 바뀌고 연음.

받침	대표음	예시
ㄱ, ㄲ, ㅋ	ㄱ	국[국], 밖[박], 부엌[부억]
ㄴ	ㄴ	소원[소원]
ㄷ, ㅌ, ㅈ, ㅊ, ㅊ, ㅎ	ㄷ	남, 날, 낫, 낫, 낫, 낫, 낫 → [남]
ㄹ	ㄹ	말[말], 발[발]
ㅁ	ㅁ	감[감]
ㅂ, ㅃ	ㅂ	입, 앞 → [입]
ㅇ	ㅇ	강[강]

2. 자음군 단순화 : 음절의 끝에 두 개의 자음(겹받침)이 올 때, 이 중에서 한 자음이 탈락하는 현상

· 우리말에서 음절 말 위치에 놓이는 자음은 하나만 올 수 있기 때문에 겹받침 중 하나가 탈락한다. 그러나 겹받침이 모음으로 시작하는 조사나 어미와 결합될 경우 두 자음이 모두 발음된다. 예) 앉으면 → [안즈면]

[주의] 쌍자음 'ㄲ, ㅃ'은 겹받침이 아니므로 자음군 단순화가 적용되지 않는다.(음절 끝소리 규칙이다.)

겹받침	환경	결과	예시
체언의 겹받침 ㄱ, ㄹ, ㅂ, ㄷ, ㄹ	어말 또는 자음 앞	[ㄱ, ㄹ, ㅂ, ㄷ, ㄹ]	넋 → [넉], 여덟 → [여덨], 값 → [갑], 닭 → [닥], 삼 → [삼]
어간의 겹받침 ㄴ, ㄹ, ㄷ, ㄹ, ㅂ, ㄷ, ㄹ	자음 앞	[ㄴ, ㄹ, ㄷ, ㄹ, ㅂ, ㄷ, ㄹ]	앉고 → [안꼬], 많네 → [만:네], 핥고 → [할꼬], 앓는 → [알른], 없고 → [업:꼬], 굶다 → [굸:따], 읊다 → [읍:따] 단, 'ㄹ, ㄷ'의 'ㅎ'은 다음 음절의 첫소리와 축약되기도 한다. 예) 많다 → [만타]

[참고] 특이한 겹받침 발음(알아두자)

- 어간의 겹받침 ㄹ → [ㄹ] / ㄱ 앞 예) 읽고 → [일꼬], 맑게 → [말께]
ㄹ → [ㄱ] / ㄱ 이외의 자음 앞 예) 읽다 → [익따], 맑다 → [막따]
- 어간의 겹받침 ㅂ → [ㄹ] / 자음 앞 예) 넓고 → [널꼬], 짧게 → [잘께]
ㅂ → [ㅂ] (뵈-/ 자음 앞, 넓죽하다, 넓둥글다)
예) 뵈고 → [뵈꼬], 넓죽하다 → [넙쭈카다], 넓둥글다 → [넙똥글다]
⇒ 'ㅂ'은 주로 'ㄹ'이 남으나, 자음 앞에 나타난 '뵈-'과, '넓죽하다, 넓둥글다'의 'ㅂ'은 'ㅂ'이 남는다.

3. 거센소리되기 (자음 축약) : 예사소리 'ㄱ, ㄷ, ㅂ, ㅅ'이 'ㅎ'과 만나 거센소리 [ㅋ, ㅌ, ㅍ, ㅊ]로 발음되는 현상

ㅎ + ㄱ, ㄷ, ㅂ, ㅅ → [ㅋ, ㅌ, ㅍ, ㅊ] 예) 놓고 → [노꼬], 앓던 → [안턴], 실지 → [실치]
ㄱ, ㄷ, ㅂ, ㅅ + ㅎ → [ㅋ, ㅌ, ㅍ, ㅊ] 예) 낙하산 → [나카산], 말형 → [마텃], 값 흥정 → [가퐁정]
-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나 자음군 단순화를 거친 자음이 거센소리되기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

[선택지 해설]

㉠	긋는 → 자음군 단순화	극는 → 비음화	궁는
㉡	표준발음	꽃말 → 음절의 끝소리 규칙	꼰말 → 비음화
	비표준발음	꽃말 → 음절의 끝소리 규칙	꼰말 → 양순음화
㉢	물난리 → 유음화	물랄리	
㉣	표준발음	담그다	
	비표준발음	담그다 → 연구개음화	당그다
㉤	표준발음	갑갑하다 → 거센소리되기(축약)	갑까파다 → 된소리되기
	비표준발음	갑갑하다 → 거센소리되기(축약)	갑까파다 → 연구개음화

11. ㉡

정답해설 답은 ㉡야.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윗글의 내용을 정확히 정리하고 시작해야 해. 조음 방법 동화인 '비음화', '유음화'는 표준 발음으로 인정받고, 조음 위치 동화인 '연구개음화'와 '양순음화'는 표준 발음으로 인정받지 못해. 그리고 한 가지 더! 비표준발음인 조음 위치 동화는 조음 방법 동화가 일어난 후, 그러니까 표준 발음의 형태에서 일어나는 거야. 자, 그럼 선지를 보자. ㉡의 표

준발음은 우선 '꽃말'에서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 일어나 [꽃말]이 된 후, 조음 방법 동화인 비음화가 일어나 [곤말]이 돼. 이렇게 표준발음이 도출된 후에 비표준발음을 판단해야 해. 비표준발음인 [꿈말]은 표준발음인 [곤말]에서 'ㄴ'이 뒤의 'ㅁ'의 영향을 받아 'ㄹ'이 된 거야. 즉, 치조음 'ㄷ'이 양순음 'ㅁ'의 영향을 받아 'ㄹ'으로 발음되는 조음 위치 동화라는 것은 틀렸어. 왜? 치조음 'ㄴ'이 양순음 'ㅁ'의 영향을 받아 'ㄹ'으로 된 거니까!

[오답풀이]

- ①을 살펴보자. ㉠의 표준발음은 우선 '끓는'에서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 일어나 [극는]이 된 후, 조음 방법 동화인 비음화가 일어나 [극는]이 돼. 즉, 음절의 끝소리 규칙 후, 파열음 'ㄱ'이 비음 'ㄴ'의 영향을 받아 'ㅇ'으로 발음된 거야.
- ③을 살펴보자. ㉢의 표준발음은 '물난리'에서 조음 방법 동화인 유음화가 일어나서 도출된 [물랄리]야. 즉, ㉢의 표준발음은 비음 'ㄴ'이 유음과 만나 'ㄹ'이 되는 조음 방법 동화인 거지.
- ④를 살펴보자. 먼저, ㉠의 비표준발음은 앞에서 봤듯이 '양순음화'에 의한 거였어. 다음으로, ㉢은 표준발음 [담그다]에서 'ㄹ'이 연구개음인 'ㄱ'의 영향을 받아 'ㅇ'이 되는 연구개음화를 겪어 비표준발음인 [담그다]가 도출 돼. 마찬가지로, ㉡도 거센소리되기, 된소리를 거친 표준발음 [갑까파다]에서 'ㅂ'이 연구개음인 'ㄱ'의 영향을 받아 'ㄱ'이 되는 연구개음화를 겪어 비표준발음인 [각까파다]가 도출 돼. 자, 그럼 이제 선지를 정확히 보자. 선지에서는 비표준 발음의 동화는 발음상의 제약 조건과는 무관하게 일어난 것이라고 했어. 즉, 조음 위치 동화인 '연구개음화'와 '양순음화'는 발음상의 제약 조건과는 무관하게 일어난다는 거지. 이걸 인지하고, 다시 뒷글을 보면 '조음 위치 동화는 발음상의 제약 조건과 무관하게 발음상의 편의를 위해서만 발생하는 것'이라는 구절이 2문단에 있는 게 보일 거야. 즉, ④번 선지는 맞는 거야.
- ⑤를 살펴보자. ㉢은 표준발음 [담그다]에서 'ㄹ'이 연구개음인 'ㄱ'의 영향을 받아 'ㅇ'이 되는 연구개음화를 겪어 비표준발음인 [담그다]가 도출 돼. 마찬가지로, ㉡도 거센소리되기, 된소리를 거친 표준발음 [갑까파다]에서 'ㅂ'이 연구개음인 'ㄱ'의 영향을 받아 'ㄱ'이 되는 연구개음화를 겪어 비표준발음인 [각까파다]가 도출 돼. 즉, 두 경우 모두 'ㄹ'과 'ㅂ'이라는 양순음이 뒤에 오는 연구개음 'ㄱ'의 영향을 받아 연구개음으로 바뀐 조음 위치 동화를 겪은 거야.

[13번][문제를 풀기위해 알아야 할 개념 정리]

중세의 명사 파생 접미사 vs 명사형 어미		
명사 파생 접미사	옵 : 양성모음 뒤	ㅁ춤 (뭉+옵)
	음 : 음성모음 뒤	여름 (열+음)
	익 : 양성모음 뒤	노퍽 (높+익)
	의 : 음성모음 뒤	기리 (길+의)
vs		
명사형 어미	옵 : 양성모음 뒤	자봄 (잡+옵)
	음 : 음성모음 뒤	날로 뿌메 (뿌+음+에)

[선택지 해설]

13. ①

정답해설 답은 ①이야. 이 문제를 풀 때는 현대어 해석을 통해 ㉠, ㉡, ㉢에 해당하는 것이 '명사 파생 접미사'가 붙은 명사인지 '명사형 전성 어미'가 붙은 용언의 활용형인지 판단하고, 중세에서는 무엇이 붙는지 도출해야 해.

먼저, ㉠의 경우 현대어를 보니까 '높이'는 명사야. 뒤에 조사를 붙이고 있고, 서술성이 없잖아. 그럼 중세의 명사 파생 접미사에 해당하는 '의/익' 중 하나를 붙여야 겠지? 그런데 앞의 어근 '높'은 양성 모음을 가지니까 '익'이 붙어야 해. 즉 '높- + -익'이 되는 거고, 그 후 연음이 되어 '노퍽'이 되는 거지.

다음으로, ㉡의 경우 현대어를 보니까 '쏟은'은 무언가를 사용하는 일련의 동작이라는 서술성이 있어. 즉, 용언의 활용형이니까 명사형 전성 어미가 붙어야 해. 그럼 중세에서 '-옵/음'이 쓰이겠네. 그런데, 중세 때, '쓰'는 '뿌'였어. 그리고 이때 쓰인 모음 'ㅡ'는 음성 모음이야. 그러므로, 뒤에 '-음'이라는 명사형 전성 어미가 와야 해. 정리하면, '뿌- + -음'이 되어 '뿌이' 되고, 그 뒤에 조사 '에'가 붙어 연음이 되어 '뿌메'가 되는 거야.

마지막으로, ㉢은 현대어를 보니 '웃음'이라는 명사가 되었어. 그렇다면 어근 '웃'에 명사 파생 접미사 '-(으)ㅁ/(으)ㅁ'이 붙어야 해. 그런데, '웃'에는 음성 모음이 있네! 그럼 '-(으)ㅁ'을 써야 해. 즉, '웃- + -음'이 된 후, 연음이 되어 '우슴'이 되는 거야.

[15번][문제를 풀기위해 알아야 할 개념 정리]

용언의 규칙 활용과 불규칙 활용

· 규칙 활용 : 용언 활용 시, 어간과 어미의 모습이 일정하거나, 변하더라도 국어의 음운 규칙으로 설명 가능한 것

변화 없음	가다, 가고, 가지, 가게, 가라, 가서, 갈, 간 등	
변화 있음	‘ㄹ’ 탈락	쓰- + -어 → 써 끄- + -어 → 꺼
	‘ㄹ’ 탈락	살- + -으니 → 사니 울- + -는 → 우는 날- + -니 → 나니?

· 불규칙 활용 : 용언 활용 시, 어간과 어미의 기본 형태가 변하고, 그를 국어의 음운 규칙으로 설명할 수 없는 것

① 어간이 변하는 불규칙 활용

종류	내용	불규칙 활용의 예	규칙 활용의 예
‘ㅅ’ 불규칙	모음 어미 앞에서 ‘ㅅ’이 탈락함	짓- + -어 → 지어	벗- + -어 → 벗어
‘ㄷ’ 불규칙	모음 어미 앞에서 ‘ㄷ’이 ‘ㄹ’로 바뀜	건- + -어 → 걸어	달- + -아 → 달아
‘ㅃ’ 불규칙	모음 어미 앞에서 ‘ㅃ’이 ‘오/우’로 바뀜	돕- + -아 → 도와	잡- + -아 → 잡아
‘ㄹ’ 불규칙	모음 어미 앞에서 어간의 ‘ㄹ’가 ‘ㄹㄹ’로 바뀜	흐르- + -어 → 흘러	따르- + -아 → 따라
‘우’ 불규칙	모음 어미 앞에서 ‘우’가 탈락함	푸- + -어 → 퍼	주- + -어 → 주어

② 어미가 변하는 불규칙 활용

종류	내용	불규칙 활용의 예	규칙 활용의 예
‘여’ 불규칙	어간 ‘하’ 뒤에서 어미 ‘아/어’가 ‘여’로 바뀜	합격하- + -어 → 합격하여	파- + -아 → 파
‘러’ 불규칙	어간 ‘르’ 뒤에서 어미 ‘어’가 ‘러’로 바뀜	푸르- + -어 → 푸르러	치르- + -어 → 치러
‘너라’ 불규칙	명령형 어미 ‘아/어라’가 ‘너라’로 바뀜	오- + -거라 → 오너라	먹- + -거라 → 먹거라
‘오’ 불규칙	‘달/다’의 명령형 어미가 ‘오’로 바뀜	달/다- + -아라 → 다오	주- + -어라 → 주어라

③ 어간과 어미가 변하는 불규칙 활용

종류	내용	불규칙 활용의 예	규칙 활용의 예
‘ㅎ’ 불규칙	‘ㅎ’으로 끝나는 어간에 어미 ‘아/어’가 오면 ‘ㅎ’이 없어지고 어미도 바뀜	파랗- + -아서 → 파래서	좋- + -아서 → 좋아서

[선택지 해설]

㉠	나르다	나르- + -아 → 날라	‘르’ 불규칙 용언
	미덥다	미덥- + -어 → 미더워	‘ㅁ’ 불규칙 용언
㉡	뒤집다	뒤집- + -어 → 뒤집어	규칙 용언
	치르다	치르- + -어 → 치러	규칙 용언(— 탈락)
㉢	수놓다	수놓- + 아 → 수놓아	규칙 용언(발음 상 ㅎ 탈락)
	묻다	묻- + -어 → 물어	규칙 용언
㉣	푸다	푸- + -어 → 퍼	‘우’ 불규칙 용언
	걷다	걷- + -어 → 걸어	‘ㄷ’ 불규칙 용언
㉤	들르다	들르- + -어 → 들러	규칙 용언(— 탈락)
	묻다	묻- + -어 → 물어	‘ㄷ’ 불규칙 용언

15. ㉤

정답해설 답은 ㉤야. 어떠한 용언이 규칙 용언인지 불규칙 용언인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어간 뒤에 모음 어미 ‘-아/어’를 붙여보는 게 가장 쉬워! 그럼, ㉤번 선지를 해결해 보자. 먼저, ‘들러’의 기본 형태는 ‘들르다’야. 어간이 ‘들르’지. 여기에 어미 ‘-어’를 붙이면 ‘들러’가 돼. 이때 어간의 모음 ‘ㅡ’가 탈락해. 자, ‘ㅡ’탈락은 규칙 용언이야. ‘ㅡ’가 다른 모음과 연달아 만나면 ‘ㅡ’가 탈락하는 것이 규칙이거든! 다음으로, ‘묻겠습니다’의 기본형은 ‘묻다’이며, 이때, ‘묻다’의 뜻은 ‘어떠한 일에 대한 책임을 따지다’라는 뜻이야. 이 뜻임을 유의하면서 어미 ‘-어’를 붙이면 어떻게 돼? 맞아, ‘물어’가 돼. 즉, 어간의 종성 ‘ㄷ’이 뒤에 모음 어미를 만나 ‘ㄹ’로 변하는 ‘ㄷ’ 불규칙 활용이 일어나. 즉, ‘묻다’는 불규칙 용언이야.

[오답풀이]

①을 살펴보자. 먼저, ‘날랐다’의 기본형은 ‘나르다’이며, 어간 ‘나르’에 어미 ‘-아’를 붙이면 ‘날라’가 돼. 즉, ‘르’로 끝나는 어간 뒤에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가 올 때, ‘르’가 ‘ㄹ’이 되는 ‘르’ 불규칙 활용이 일어나는 거야. 즉, ‘나르다’는 ‘르’ 불규칙 용언인 거야. 다음으로 ‘미덥지’의 기본형은 ‘미덥다’야. 즉, 어간이 ‘미덥’이야. 여기에 어미 ‘-어’를 붙여보면 ‘미더워’가 돼. 즉, ‘ㅁ’이 모음 어미를 만나서 ‘오/우’가 되는 거야. 즉, ‘미덥다’는 ‘ㅁ’ 불규칙 용언이야.

②를 살펴보자. 먼저, ‘뒤집어’의 기본형은 ‘뒤집다’로, 어간 ‘뒤집’에 어미 ‘-어’를 붙이면 그대로 형태 변화 없이 ‘뒤집어’가 되는 규칙 용언이야. 다음으로, ‘치르고’의 기본형은 ‘치르다’이며 어간은 ‘치르’야. 여기에 어미 ‘-어’를 붙이면 ‘치러’가 돼. 자, 여기서 헛갈리지 말자. ‘치르- + -어’에서 ‘치러’가 되는 것은 어간의 ‘ㅡ’가 탈락한 거야. 즉, ‘ㅡ’탈락이라는 규칙 활용이 일어난 거야. 그러므로, ‘치르다’는 규칙 용언이야.

③을 살펴보자. 먼저, ‘수놓았다’의 기본형은 ‘수놓다’야. 어간이 ‘수놓’이지. 여기에 어미 ‘-아’를 붙이면 ‘수놓아’가 돼. 형태에 변화가 없지? 그럼 규칙 용언이야. 다음으로, ‘묻은’의 기본형은 ‘묻다’야. 이 단어 아까 봤지? 그런데 의미가 달라! 이 경우, ‘묻다’는 ‘가루, 풀, 물 따위가 그보다 큰 다른 물체에 들러붙거나 흔적이 남게 되다.’라는 의미야. 이 경우, 뒤에 어미 ‘-어’를 붙여봐. 그럼 ‘물어’가 돼! 형태 변화가 없어! 즉, 불규칙 용언이었던 ㉤번 선지의 ‘묻다’와 달리 ③번 선지의 ‘묻다’는 규칙 용언이야.

④를 살펴보자. 먼저, ‘폄다’의 기본형은 ‘푸다’야. 어간이 ‘푸’야. 이때, 어미 ‘-어’를 붙이면 ‘퍼’가 돼. 즉, ‘푸- + -어’에서 ‘우’가 탈락하는 거지. 이는 ‘우’ 불규칙 활용으로, ‘푸다’는 불규칙 용언이야. 다음으로, ‘걷는’의 기본형은 ‘걷다’야. 어간 ‘걷’에 어미 ‘-어’를 붙이면 ‘걸어’가 돼. 즉, 종성의 ‘ㄷ’이 모음어미 ‘-어’ 앞에서 ‘ㄹ’이 되는 ‘ㄷ’ 불규칙 활용을 하는 불규칙 용언이야.

#Chapter 2. “영역 별 주요 문항/지문” 집중 분석 - ② 문학

[참고] 모의고사로 문제를 풀어 본 김에 EBS 연계 작품 공부한다고 생각하고, 그냥 버리지 말고 챙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따로 EBS 연계를 대비하는 것도 좋지만, 이렇게 출제 될 때마다 공부해두는 것도 분명히 도움이 됩니다.

현대시 [16~19번 지문] [정훈, '우활가'] “한 알도 없이 세월이 늦어지니, 평생 우활은 날 따라 길어 간다”

#EBS 수능완성 연계 #수능완성(p177)

[읽기 전] ‘<보기>’를 가이드라인으로 작품 내 주된 특징을 먼저 파악해 보자.

[한수 모의고사 <보기>]	
(가)의 화자는 부나 명예와 같은 세속적 가치를 추구하지 않는 자신 을 ‘우활’하다고 생각하지만, / 유교적 가치를 추구하면서 자연을 즐기며 살아가는 자신의 삶에 대한 자부심 을 잃지 않는다.	
<보기> point	(1) 화자 스스로에 대한 인식 : ‘우활함’ ⇒ 똑똑하고 약삭빠르지 못함 (2) 자신의 삶에 대한 ‘자부심’ ⇒ ‘우활하게’ 사는 삶이 마냥 부정적이기만 한 것은 아니다. (1)+(2) 화자 자신의 삶에 대한 ‘부정적 인식’과 ‘긍정적 인식’이 모두 나타난다고 보는 것이 적절하다.

[읽는 중] ‘고전시가에서 긍정은 긍정이고, 부정은 부정이다. 라도한 의미 부여는 고전시가 작품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EBS 수록 부분]

엇지 삼긴 몸이 이대도록 우활(迂濶)하고
우활(迂濶)도 우활(迂濶)흐샤 그레도록 우활(迂濶)흐샤
↳ [EBS 출제] [주로 4음보의 율격을 사용]
이봐 벗님네야 우활(迂濶)흔 말 들어 보소
↳ [EBS 출제] [청자 설정 = 말을 건네는 방식의 사용]

현대어 풀이

어찌 태어난 몸이 이토록 어리석은가
어리석기도 어리석구나
이봐 벗님(=청자)들아 이 어리석은 사람(=화자)의 말을 들어보시오

이 내 저머신 제 우활(迂濶)호미 그지업서
이 몸 삼겨나미 금수(禽獸)에 다르므로
애친경형(愛親敬兄)과 충군제장(忠君弟長)을
분내사(分內事)만 헤엇더니 흔 일도 못되며
세월이 늦어지니 평생 우활(迂濶)은 날 쫓와 기러간다

현대어 풀이

이 내 몸이 젊을 적에, 어리석기 그지없어
이 몸이 생겨남이 금수(=짐승)와 다르므로
애친경형(=어버이를 사랑하고 형을 공경하는 것)과 충군제장(=임금께 충성하고 어른들께 공손하게 대하는 것)을
나의 분수로 여겼지만 그 중 한 가지도 제대로 하지 못해
세월만 흘러가니 평생에 (어리석음이) 세월 따라 깊어간다

아침이 부족한들 저녁을 근심하며
일간모옥(一間茅屋)이 비시는 줄 아뉘던가

↳ [EBS 출제] [설의적 표현의 사용]

현순백결(懸鵲百結)이 붓쓰러움 어이 알며
어리고 미친 말이 늪 무일 줄 아뉘던가

↳ [EBS 출제] [애친경형과 춘군제장을 분내사로 여기며 살았던 지난 삶에 대한 회의]

현대어 풀이

아침도 부족한데 저녁인들 풍족하겠는가.
작은 초가집에 비까지 새는구나.
누더기 옷을 입는다고 해도 그게 부끄러운 것임을 모르는데
어리석고 엉뚱한 말로 남을 어찌 움직일까

우활(迂濶)도 우활(迂濶)할사 그레도록 우활(迂濶)할사
춘산(春山)의 곳을 보고 도라올 줄 어이 알며
하정(夏亭)의 즈을 드러 꿈 썰 줄 어이 알며
추천(秋天)의 들 마자 밤드논 줄 어이 알며
동성(冬雪)에 시흥(詩興) 계워 추움을 어이 알리
사시가흥(四時佳景)을 아므란 줄 모로라

현대어 풀이

어리석기도 어리석구나 그토록 어리석구나
(너무 어리석어서) 봄 산의 꽃을 봐도, 돌아올 줄을 모르고
여름 정자에서 잠이 들어도 꿈 꿀 줄을 모르고
가을 하늘 달을 봐도, 밤이 깊어가는 줄을 모르고
겨울 눈이 흥겹게 내려도, 추워지는 줄을 모르니
(어리석음 때문에) 사계절의 흥취를 모르고 살고 있구나

말로(末路)에 부린 몸이 므스 일을 사념(思念)홀고
인간시비(人間是非) 듯도 보도 못허거든
일신영고(一身榮枯) 백년을 근심홀가

현대어 풀이

나이를 먹고 (변방에) 버려진 몸이 무슨 일을 생각할까
속세의 일에 대해서는 듣지도 보지도 못하거든
이 몸의 처지에 나라의 사정을 걱정하겠는가

[EBS 수록 부분]

우활(迂濶)도 우활(迂濶)할사 그레도록 우활(迂濶)할사
아침의 누잇고 나죄도 그러하니
하늘 삼긴 우활(迂濶)을 내 혈마 어이 흐리
그레도 애뉘도다 고쳐 안자 싱각하니
이 몸이 느껴 나 애들은 일 하고 만타
일백번 다시 죽어 넷 사람 되고라자

↳ [EBS 출제] [성리학적 수양의 길을 걸어왔음을 보여주는 동시에 사대부로서의 뜻을 실현하고 싶은 소망을 드러냄]

현대어 풀이

어리석기도 어리석구나 그토록 어리석구나
아침에도 그러하고 저녁에도 그러하니(=아침에도 어리석고 저녁에도 어리석으니)
하늘이 내린 어리석음을 내가 어떻게 벗어날 수 있으리
그래도 (어리석음에 대해 생각하지 않으려고 해도) 애닭구나, 다시 앉아 생각하니
세상에 태어난 몸 애달픈 일 많고 많다.
일백 번 다시 죽어 옛날 사람으로 태어나고 싶다.

희황천지(羲皇天地)에 잠간이나 노라 보면
요순일월(堯舜日月)을 저그나 뵈울 새슬
순풍(淳風)이 이원(已遠)하니 투박(偷薄)이 다 되거다
한만(汗漫)한 정회(情懷)를 놀드려 니르려뇨

현대어 풀이

복희씨 때(=태평성대)의 세상에 잠간이나 돌아보면
요순 때의 세월을 조금이나마 볼 것인데
(지금은) 태평성대가 멀어져서 (세상이) 흉측하게 되었구나.
이 어리석은 마음을 누구에게 말하리오

태산에 올라가 천지팔황(天地八荒)이나 다 바라 보고 제고
추노(鄒魯)에 두르 거러
성현 강업(聖賢 講業)하던 자취나 보고제고
주공(周公)은 어디 가고 꿈의도 뵈잔느고
이심(已甚)한 이 내 양을 슬허하다 어이 흐리

↳ **[EBS 출제]** [평생 성리학적 수양의 길을 묵묵히 걸어왔지만 현실에서 뜻을 실현하지 못한 자신의 삶에 대한 자조와 체념]

현대어 풀이

태산에 올라가 온 세상을 보고 싶구나
추나라 노나라 두루 걸어 다니면서
성현께서 가르치던 자취나 보고 싶구나
주공은 어디 가고 꿈에도 보이지 않는가.
매우 심각한 나의 삶을 슬퍼한들 어찌할까

만리(萬里)에 눈 뜨고 태고(太古)에 뜻을 두니
우활(迂濶)한 심혼(心魂)이 가고 아니 오노왜라
인간(人間)의 호자 씨여 놀드려 말을 흘고
축타(祝鮓)의 망언(妄言)을 이제 비화 어이 하며

송조(宋朝)의 미색(美色)을 얼근 늦치 잘 흘런가 ⇒ **[EBS 출제]** [수양만으로는 등용의 기회를 얻을 수 없는 현실에 대한 비판적 인식]

현대어 풀이

먼 곳에 눈 뜨고 태고에 뜻을 두니
우활한 정신이 가고 오지 않는구나
속세에 혼자 깨어 있으니 누구에게 말을 할까
축타(=아첨하는 말을 잘해서 권력을 잡은 사람)의 아첨을 이제 배워 어떻게 하며
송나라 공자(=잘 생긴 얼굴로 권력을 잡은 사람)의 외모를 엮은(=흠집이 많이 난) 내 얼굴이 잘 할 수 있을까

우담(右詹) 산초실(山草實)를 어디 어더 머그려뇨
무이고 못고 이미 다 우활(迂濶)의 타시로다

이리 헤오 저리 헤오 다시 헤니
일생사업(一生事業)이 우활(迂濶) 아닌 일 업뇌와라

현대어 풀이

우담산초 열매를 어디서 얻어먹을까
미움 받고, 사랑받지 못한 것이 다 내가 어리석은 탓이구나.
이렇게 저렇게 생각하며 다시 생각하니
한 평생 동안 어리석음이 없었던 일이 없구나.

이 우활(迂濶) 거느리고 백년을 어이 흐리
아희야 잔 가득 부어라 취하여 내 우활(迂濶) 닛다

현대어 풀이

이 어리석음을 거느리고 평생을 어찌 살아갈까.
아이야 잔 가득 술을 부어라 취하여 내 어리석음을 잊어야겠다.

[읽은 후] 'EBS 연계 지점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정훈, 「우활가」 - EBS 연계 POINT	
해제	이 작품은 자신의 우활함을 한탄 하며 자연을 벗 삼아 안빈낙도하려는 심정 을 노래한 은일 가사이다. 이 작품에서 화자는 자신의 처지를 우활하다고 하며 탄식하는데, 이는 시대를 제대로 타고나지 못했다는 인식을 보여 주는 것이다. 「우활」을 주제로 하여 자신을 객관적 위치에 놓고 성찰 하되, 성리학적 수양의 길을 묵묵히 걷는 외로운 심정과 오로지 자연과 벗하여 탈속한 즐거움의 경지를 잘 조화 시킨 작품이다. 또한 '우활'이라는 단어를 반복적으로 사용함으로써 주제의식을 강조하는 것이 특징 이다.
주제	가난하고 우활한 자신에 대한 탄식
[수능완성 출제 요소 정리]	
문제1	'우활가'의 표현상 특징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답인 선지	④ 계절의 변화에 따라 시상을 전개하여 시적 상황을 구체화하고 있다. ⇒ 화자의 심리 변화에 초점을 두어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 그러나 계절의 변화를 나타낸 부분은 찾을 수 없다.
<보기>	
이 시에서 「우활」은 단순히 가난이라는 물질적 조건에서 비롯된 것은 아니다. 오히려 사대부로서 성리학적 수양의 길을 걸어왔지만 부정적 현실 로 인해 등용이나 공명의 기회조차 얻을 수 없는 작가의 불우한 처지와 관련 이 깊다. 이 시에는 소망과 의지, 갈등과 체념 등의 정서가 복합적으로 드러나는데, 이는 뜻을 실현하지 못하는 작가 자신과, 어떠한 희망과 낙관적 전망도 불가능한 현실에 대한 인식에서 비롯된 산물 이다. 그런 점에서 이 작품은 사대부로서의 자기 정체성에 대한 화자의 치열한 고민이 담겨 있는 작품 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문제2	<보기>를 바탕으로 '우활가'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답인 선지	③ '이심헌 이내 쇠를 슬허하다 어이허리'는 부정적 현실과 대립하며 갈등을 겪었던 과거의 삶에 대한 회한을 표현하고 있다. ⇒ '이심헌 이내 쇠를 슬허하다 어이허리'에서 화자는 평생 성리학적 수양의 길을 묵묵히 걸어왔지만 현실에서 뜻을 실현하지 못한 자신의 삶에 대해 자조와 체념의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화자가 현실에 흔들리지 않고 '애친경형과 충군제장을 분내사'로 여기며 살아왔다는 점에서 화자의 과거의 삶이 부정적 현실과의 대립으로 인해 갈등을 겪었던 삶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화자가 과거의 삶을 뉘우치고 있다고 해석하는 것도 적절하지 않다.

현대소설 [29~32번 지문] [박완서, '나의 가장 나중 지니인 것']

“아무렇지 않지 않은 사람이 아무렇지도 않아 보였다면 그게 얼마나 훌륭한 노력의 결과였는지는 한 번 생각해 볼 적 없지요”

#EBS 수능특강 연계 #수능특강(p309), 사용 설명서(p290)

[전체 줄거리]
<p>[지문 출제 부분] 1980년대 민주화 시위 과정에서 대학생 아들이 죽자 '나'는 세상과 거리를 두고 살아간다. 어느 날 조상의 제삿날을 확인하는 순위 동서의 전화를 받고 통화하면서 아들에게 걸었던 자신의 기대와 죽은 아들을 잊기 위해 몸부림치는 현실을 주절주절 늘어놓는다. 아들의 죽음으로 인한 상실감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나'를 위해 어느 날 친구가 찾아와 어느 동창 친구를 방문하자고 이끈다. 그 동창은 교통사고로 하반신이 마비된 데다 치매까지 겪는 아들과 살고 있다. 동창은 위로 차 방문 온 친구들 앞에서도 아들에게 악담을 하면서 힘겹게 환자 뒷바라지를 한다. 그런데 환자를 도우려고 '나'가 손을 내밀자 환자 아들은 괴성을 지르며 거부한다. 그러자 동창은 '이 웬수 덩어리가 또 효도하네.'라며 '나'가 손을 대지 못하게 한다. 악만 남은 동창의 씩씩하고도 자애로운 모습을 보면서 '나'는 그동안 참아 왔던 눈물을 쏟는다.</p>

[읽기 전] '현대소설의 시작, <보기> 정보를 정리'

'한수 모의고사' <보기>	
<p>애도는 애착을 가졌던 대상의 부재로 인해 겪게 되는 상실감에서 벗어나 마음의 평정을 회복하는 과정을 의미한다. 대상의 부재에서 기인하는 정신적 고통으로부터 도피하기 위해 대상이 부재하는 상황을 부정하려는 경향을 보이기도 한다. 그러나 대상의 부재를 있는 그대로 수용하게 될 때 점차 마음의 평정을 회복할 수 있게 된다. 전화 통화 상황을 설정하여 인물의 내밀한 이야기를 들려주는 서술 방식을 취하고 있는 박완서의 「나의 가장 나중 지니인 것」은 아들의 죽음을 가슴에 안고 살아가는 한 어머니의 애도의 과정을 다룬 작품으로 볼 수 있다.</p>	
<p>[tip] '정신적 고통으로부터 도피하기 위해'라는 말은 곧 지금은 정신적 고통을 상당히 받고 있는 상태임을 의미한다. 이와 관련하여 <보기>에 주어진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p>	
<p>[부재하는 상황을 부정] ⇔ [마음의 평정이 아닌 혼란] ⇔ [정신적 고통이 있는 상태]</p>	
<p><보기> point</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애도란 마음의 평정을 회복하는 과정 2. 부재를 부정하는 것이 아닌 부재를 수용할 때 마음의 평정을 회복 3. 전화 통화 상황을 설정
<p>[tip] 현대소설은 사회의 양상이 복잡한 만큼, 겪는 문제나 갈등 역시 다양하여 그 지문을 바로 읽을 때 단번에 그 양상을 파악하기 어려울 수 있다. 그러므로 지문 들어가기 전에 <보기>를 먼저 읽고 이때 <보기>에서 제시한 문제 상황이 '개인적'인 것인지, '사회적'인 것인지부터 파악하자. 또한 이와 함께 '너가 괴로워하는 이유가 뭐야?' 라고 묻듯 문제 상황을 의식적으로 먼저 인식하고 읽으려 하자.</p>	

[읽는 중] '인물의 내면을 완벽하게 이해하려 하지 말자'

<p>밖에 나갔다가 집에 들어왔을 때 열쇠로 문을 따고 들어가야 할 때와 안에서 창숙이나 창희가 열어 줄 때가 있잖아요? 안에서 맞아 줄 사람이 있을 때가 없을 때보다 좋은 게 인지상정이려만 전 그 반대예요. 그 애들의 마중을 받으면 창환이의 빈자리가 왜 그렇게 크게 느껴지는지, 나도 모르게 무너져 내리듯이 밖에서 꾸민 나를 포기해 버리죠. 그러나 열쇠로 문을 따고 빈집에 들어섰을 때는 단판이에요.</p>
--

[tip] 얼핏 속 읽으면 마치 독백인 줄 착각할 수 있다. 그러나 <보기>에서 지문의 상황이 '전화 통화'라고 분명하게 진술하였으므로, 지문에 청자가 전혀 드러나지 않더라도, **청자가 수화기 너머로 듣고 있는 상황을 전제로 한 장면임을 인지하고 있어야만 한다.**

창환아, 에미 왔다. 그렇게 활기 넘치는 소리로 말을 걸며 들어가는 거예요. 핸드백을 내던지면서 옷을 벗으면서도 냉장고에서 찬물을 꺼내 별걱별걱 들이마시면서도 연방 말을 시키죠. 그럴 때는 집 구석구석이 창환이로 가득 차는 거예요. 내가 그 애 안에 있다는 걸 실감하죠. 어느 쪽이 진짜 나인지 모르겠어요. 개가, 생때같은 내 아들이 어느 날 갑자기 없어졌다는 걸 어떻게 믿을 수가 있겠어요. 형님, 우리가 참 모진 세상도 살아 냈다 싶어요. 어찌 그리 모진 세상이 다 있었을까요? 형님, 그나저나 그 모진 세상을 다 살아 내거나 한 걸까요? 여지껏 곳곳하게 잘 버티기에 그냥저냥 극복한 줄 알았더니 이제 와서 웬 약한 소리냐구요? 형님 보시기에도 제가 그렇게 아무렇지도 않아 보입디까? 아무렇지 않지 않은 사람이 아무렇지도 않아 보였다면 그게 얼마나 눈물겨운 노력의 결과였는지는 한 번도 생각해 본 적 없으시죠. 형님도 아마 은하계란 말은 들어 보셨을 거예요.

[tip] 자식을 읽은 심정에 대한 복잡한 내면을 드러내는 부분이다. 인물 스스로도 그 정서를 잘 알지 못하는데, 문제를 풀기 위해 읽는 수험생이 읽음과 동시에 깊은 공감과 이해를 하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다. 따라서 한 문장 한 문장 세밀한 이해를 바라는 것보다, 읽는 속도도 고려하여, **<보기>에서 주어진 내용을 활용하여 큰 가닥만 잡자.** 곧, '부분적으로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 부분이 좀 있는데, 어쨌든 **이 부분의 말들은 부정적인 상황을 부정하려는 경향을 보이는 것이겠지.**' 정도의 독해가 바람직하다.

그렇지만 그 크기나, 우주엔 우리 태양계가 속한 은하계 말고도 얼마나 많은 은하가 있고, 앞으로도 자꾸 발견될 거라는 건 저만큼 모르실걸요. 그렇게 단정을 하면 혹시 일제 시대에 여고 입학한 걸 요새 서울 대학 들어간 것보다 더 높이 평가하시고 자랑스러워하시는 형님한테는 모욕적일지도 모르지만서두요. 느닷없이 웬 은하계냐구요? 제가 너무 견딜 수 없을 때 외는 주문이 바로 은하계로부터 시작하기 때문이죠.

[중략 줄거리] '나'는 명애와 함께, 뽕소니를 당해 불구가 된 데다가 치매까지 앓고 있는 아들과 힘겹게 살아가는 친구의 집에 병문안을 갔던 일을 '형님'에게 말한다.

이러면서 병자를 요리조리 굴리고 주무르는데 그 말라빠진 노파가 어디서 그런 기운이 나는지, 거짓말 안 보태고 꼭 공깃돌 갖고 놀듯 하더라니까요. 아이들 말 짝으로 환상적이었어요. 우리는 그저 녀를 잃고 바라보기만 하다가 명애가 먼저 아이참, 하면서 손을 내밀어 거들려고 했죠. 나도 덩달아 환자를 뒤집는 일을 도우려고 손을 내밀었어요. 그러나 웬걸요. 우리의 손이 몸에 닿자마자 환자가 이상한 괴성을 질렀어요. 여직껏 흐리멍덩 공허하게 열려 있던 환자의 눈이 성난 짐승처럼 난폭해지더군요. 얼마나 놀랐는지요. 손끝이 오그라 붙는 것 같았어요. 그의 흐리멍덩한 눈은 신리와 평안감의 극치였던 거였죠. 그때 비로소 악담밖에 안 남은 것 같은 친구 얼굴에서 씩씩하고도 부드러운 자애를 읽었죠. 아이구 이 웬수덩어리가 또 효도하네, 하는 친구의 말로 미루어 어머니 외에 아무도 그를 못 만지게 한 게 한두 번이 아닌가 봐요.

저는 별안간 그 친구가 부러워서 어쩔 줄을 몰랐어요. 남의 아들이 아무리 잘나고 출세했어도 부러워한 적이 없는 제가 말예요. 인물이나 출세나 건강이나 그런 것 말고 다만 볼 수 있고, 만질 수 있고, 느낄 수 있는 생명의 실체가 그렇게 부럽더라구요. 세상에 어쩌면 그렇게 견딜 수 없는 질투가 다 있을까요? 형님, 날카로운 삼지창 같은 게 가슴 한가운데를 깊이 훑어 내리는 것 같았어요. 너무 아프고 쓰라려 울음이 복받치더군요. 여기서 울면 안 돼. 나는 황급히 은하계 주문을 외려고 했죠. 소용이 없었어요. 은하계 그까짓 거 아무것도 아니더라구요. 저는 드디어 울음이 복받치는 대로 저를 내맡겼죠. 제가 그렇게 많은 눈물을 참고 있었을 줄은 저도 미처 몰랐어요. 대성통곡, 방성대곡보다 더 큰 울음이었으니까요. 제 막혔던 울음이 터지자 그까짓 은하계쯤 검부락지처럼 떠내려가더라구요. 은하계가 무한대건 검부락지건 다 인간의 인식 안에서의 일이지, 제까짓 게

인간 없이는 있으나 마나 한 거 아니겠어요. 그 집에서 그렇게 울어 버리니까 명애도 그 친구도 기가 막힐 밖
에요. 동정이 지나치다고 생각했나 봐요. 친구는 자기를 그렇게까지 불쌍해할 것 없다고 화를 내더군요. 명애
는 아니었어요. 명애는 제 속을 어느 만큼은 읽어 낸 것 같았어요. 우리 사이엔 우정이라는 게 있었으니까요.
잘못했다고 사과를 하더군요. 그날 말고 며칠이나 그랬어요. 잘못된 거 하나도 없는데.
전 그 울음을 통해 기를 쓰고 꾸민 자신으로부터 비로소 놓여난 것 같은 해방감을 느꼈어요.

[tip] 쪽 읽어 내려가다가도 인물의 정서나 태도가 나오면 표시하자. 다 아는 내용이지만 하지 않고 속 넘
어가다 보면 **간단한 내용도 맥락과 분위기를 놓쳐 이해가 곧 안 될 때가 있으니, 제대로 습관을 들이자.**

그리고 나서 요 며칠 동안은 울고 싶을 때 우는 낙으로 살고 있죠. 그러니까 증조모님 제삿날도 깜박했
거예요. 은하계도 떠내려가는 판에 한 번 뵈지도 못한 시댁 조상 제삿날이 남아났겠어요. 이제부터 울고 싶을
때 울면서 살 거예요. 떠내려갈 거 있으면 다 떠내려가라죠, 뭐.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꾸미는 짓도 안 할
거구요. 생때같은 아들이 어느 날 갑자기 이 세상에서 소멸했어요. 그 바람에 전 즐지에 장한 어머니가 됐구
요. 그게 어떻게 아무렇지도 않은 일이 될 수가 있답니까. 어찌 그리 독한 세상이 다 있었을까요, 네, 형님? 그
나저나 그 독한 세상을 우리가 다 살아 내거나 한 걸까요?

- 박완서, 「나의 가장 나중 지니인 것」 -

[읽은 후] 'EBS 연계 지점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EBS 연계 POINT	
해제	<p>이 작품은 소중한 아들을 잃은 어머니가 자신의 마음속 깊이 감추어 둔 슬픔을 어떤 사건을 계 기로 표출하면서 마침내는 솔직한 눈물과 울음을 통해 치유하는 과정을 그린 단편 소설이다. 이 작품은 동서 간의 전화 통화 형식을 취하고 있는데, 상대방인 손위 동서(형님)의 발화는 생략된 채 '나'의 발화만으로 서술되고 있어 마치 모노드라마처럼 느껴진다. 이 소설은 '나'가 지금까지 추 구해 왔던 중산층의 가치가 아들의 죽음을 계기로 바뀌게 되었다는 것을 밝힌다. 즉 예전에 중요 한 것이 지금은 하나도 중요하지 않다고 말한다. 또한 자신의 고통을 무력화시키려는 갖은 노력 이 소용없었음도 말한다. 그런데 하반신 마비에다 치매까지 걸린 아들을 간병하는 동창을 보며, 비록 식물인간일망정 만질 수 있고 느낄 수 있는 생명의 실체를 부러워하는 대목에 이르러서 비 로소 '나'는 자신이 지금까지 가장해 왔던 허위를 벗어 낸다. 하루아침에 아들을 잃고 민주 투사 가 된 장한 어머니의 모습은 자연스러운 일이 아니다. 이길 수 없는 슬픔을 극복하기 위해 기를 쓰고 위장한 자신의 모습이었던 것이다. 그리고 그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받아들이는 이 세상의 야박함에 대해서도 작가는 비판하고 있다.</p>
주제	근원적인 상처에 대한 눈물과 울음을 통한 공감과 치유
「전화를 통한 전개 방식의 효과」(in 사용설명서)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아들을 잃은 고통을 겪은 어머니('나')의 내면을 가감 없이 보여 줌. 2. 아들의 죽음과 시대적 폭력으로 인한 상처의 극복을 보여 줌. 3. 독자가 서술자의 내면에 쉽게 감정 이입이 될 수 있도록 도움. 	
「나의 가장 나중 지니인 것의 의미」(in 사용설명서)	
<p>'나'에게 가장 소중했던 아들의 죽음과 그로 인한 슬픔의 눈물과 울음을 의미한다.</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width: 50px; margin: 0 auto;">울음</div>	<div style="display: inline-block; vertical-align: middle;">⇒</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left: 10px;">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를 쓰고 꾸민 내 자신으로부터 해방감을 느낌. • 울고 싶을 때 우는 낙으로 삶. </div>

#Chapter 2. “영역 별 주요 문항/지문” 집중 분석 - ③ 독서

[참고] 아래 분석은 강사 본인이 직접 시험을 치르고 실제 읽었던 느낌을 기억하여 그대로 쓴 것입니다. 따라서 이 분석의 내용은 실전에서 이 정도 읽어주면 된다는 ‘선’을 여러분의 ‘선’과 맞춰보는 용도로 사용하시면 되고, 그 외중에 이 정보가 왜 중요했는지에 대한 설명을 받아들이시면 좋습니다. 딱 두 가지 측면으로 분석합니다. 첫 번째는 이 정도는 읽었어야 하는 최소한의 ‘선’과 굳이 이해를 하자면 이렇다는 내용적인 측면입니다.

경제[37~42번 지문][근로 장려 세제가 저소득층 근로자의 노동에 미치는 영향]

- 설명을 읽기 전에 먼저 한 번 정독할 것을 추천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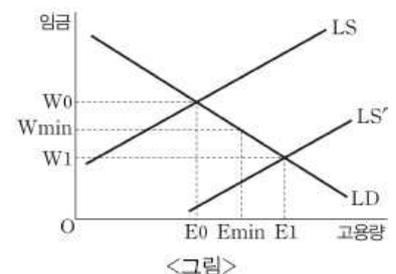
근로 장려 세제는 근로 소득이 일정 수준 이하인 저소득 근로자에게 국가에서 근로 장려금을 지급하여 근로 의욕을 고취하면서 경제적 자립을 도모하는 제도이다. 통상의 소득세는 국민이 정부에게 납부하는 것인 데 반해, 이 제도는 역으로 정부가 저소득자에게 장려금을 지급한다는 점에서 일종의 역소득세 제도로 간주되기도 한다.

근로 장려 세제는 저소득 근로자들을 소득 수준에 따라 ‘점증 구간’, ‘평탄 구간’, ‘점감 구간’으로 구분하고 각 소득 구간별로 근로 장려금을 상이한 방식으로 지급한다. 소득이 가장 낮은 점증 구간의 근로자에게는 소득의 일정 비율을 지급하고, 평탄 구간의 근로자에게는 소득과 무관하게 일정한 액수를 지급하며, 소득이 가장 높은 점감 구간의 근로자에게는 소득이 높아질수록 점차 액수를 줄여 지급한다.

그렇다면 근로 장려금은 각 구간의 근로자들에게 어떤 방식으로 영향을 미칠까? 일반적으로 시간당 임금의 상승은 근로 시간의 증감에 상반된 방식으로 영향을 미친다. 우선 시간당 임금의 상승은 여가의 기회비용을 높인다. 즉 근로자가 여가 시간을 한 시간 더 늘리면 그에 대한 대가로 포기해야 하는 임금도 증가한다. 이는 여가 시간을 줄이고 근로 시간을 늘리는 선택을 유도한다. 물론 시간당 임금이 낮아지면 여가의 기회비용을 낮춰 이와 반대되는 선택을 유도한다. 이를 ㉠대체 효과라고 한다. 반면 시간당 임금의 상승은 실제 소득 자체를 늘려 여가를 누릴 수 있는 금전적 여유도 증가시킨다. 이는 근로 시간을 줄이고 여가 시간을 늘리는 선택을 유도한다. 이를 ㉡소득 효과라고 한다. 따라서 대체 효과와 소득 효과 중 어느 것이 더 크게 작용하느냐에 따라 근로 시간의 증감이 결정된다.

근로 장려 세제는 소득의 절대 액수가 적은 점증 구간의 근로자에게는 소득 효과보다 대체 효과가 더 크게 작용하도록 하여 근로 의욕을 고취할 가능성이 높다. 소득의 일정 비율을 근로 장려금으로 지급받으면 추가 근로에 대한 시간당 임금이 증가하는 셈이 되고 그만큼 여가의 기회비용도 커지기 때문이다. 반면 근로 장려금을 받아 실제 소득이 증가하지만 그 절대 액수가 적기 때문에 소득 효과는 미미하다. 평탄 구간의 근로자의 경우에는 일정액의 근로 장려금을 받기 때문에 실제 소득이 증가하여 소득 효과는 발생하지만 추가 근로에 대한 시간당 임금이 변화하지 않기 때문에 대체 효과는 발생하지 않는다. 점감 구간의 근로자에게는 추가 근로에 대한 시간당 임금이 감소하는 셈이므로 여가의 기회비용이 낮아지는 대체 효과가 발생하는 동시에 실제 소득이 증가하여 소득 효과가 발생한다. 결과적으로 저소득 근로자 전체의 근로 시간은 점증 구간에 있는 근로자들의 근로 시간 증가와, 평탄 및 점감 구간에 있는 근로자들의 근로 시간 감소의 상대적 차이에 의해 결정될 것이다.

한편, 저소득 근로자 전체의 근로 시간이 늘어나 노동 공급이 증가하면 균형 임금이 낮아지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노동 역시 일종의 상품이므로 수요와 공급에 따라 균형 임금과 균형 고용량이 결정된다. <그림>에서 보듯 일정한 임금 수준 이하에서는 임금이 오를수록 노동 공급은 증가하고 노동 수요는 감소하므로 노동 공급 곡선(LS)은 우상향하고 노동 수요 곡선(LD)은 우하향한다. 그리고 두 곡선의 교차 지점에서 균형 임금(W0)과 균형 고용량(E0)이 결정된다. 이때 근로 장려 세제가 도입되어 저소득 근로자의 노동 공급이 증가하면, 노동 공



급 곡선인 LS가 LS'로 이동한다. 근로 장려 세제가 도입되어 노동 공급이 증가한다는 것은 동일한 임금에 대해서도 노동을 공급하려는 근로자의 수가 증가한다는 뜻이므로, 노동 공급 곡선 자체가 오른쪽으로 이동하는 것이다. 이 경우 균형 고용량은 E1로 증가하고 균형 임금은 W1로 감소한다. ©이렇게 되면 근로 장려금이 저소득 근로자가 아닌, 이들을 고용한 사용자에게 이전되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최저 임금 제도를 도입하여 균형 임금이 어느 한도 이하로 @내려가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가령 Wmin을 최저 임금으로 설정하면 임금은 Wmin 이하로 내려가지 않고 고용량 역시 Emin까지만 증가할 것이다. 최저 임금 제도는 근로 장려 세제 도입에 따른 균형 임금의 하락을 방지하는 보완적인 기능을 수행한다.

[실전 읽기] 무엇을 '이해'하고, 무엇을 '기억'할 것인가.

(C)근로 장려 세제는 근로 소득이 일정 수준 이하인 저소득 근로자에게 국가에서 근로 장려금을 지급하여 근로의욕을 고취하면서 경제적 자립을 도모하는 제도이다. 통상의 소득세는 국민이 정부에게 납부하는 것인 데 반해, 이 제도는 역으로 정부가 저소득자에게 장려금을 지급한다는 점에서 일종의 역소득세 제도로 간주되기도 한다.

근로 장려 세제는 저소득 근로자들을 소득 수준에 따라 [점증 구간], [평탄 구간], [점감 구간]으로 구분하고 각 소득 구간별로 근로 장려금을 상이한 방식으로 지급한다. 「소득이 가장 낮은 점증 구간의 근로자에게는 소득의 일정 비율을 지급하고, 평탄 구간의 근로자에게는 소득과 무관하게 일정한 액수를 지급하며, 소득이 가장 높은 점감 구간의 근로자에게는 소득이 높아질수록 점차 액수를 줄여 지급한다.」

[실전 독해] - 가볍게 읽어보고 챙길 내용만 챙기세요.

당연히 첫 문단은 누구보다 잘 읽어야 합니다. 그 와중에 어떤 글이든 첫 문단의 흐름이 비슷하다는 것에 익숙해졌으면 합니다. 그러니까 출제자가 첫 문단에서 화제를 몰고 가는 방식이라든지, 방향을 설정하는 방식에 이제는 익숙해질 때가 됐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런 느낌이나 흐름에 익숙해지는 것을 강조하는 이유는, 결국 방법적인 것들은 실제 시험에서 안 보이거나 못 써 먹고 나올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작년 수능 때도 그랬어요. 결국 이것저것 배워봤자 수능이라는 압박감과 처음 보는 낯선 지문, 시험장에서 여러 가지 상황들이 얽혀서 우리는 그냥 읽어 내려가느라 바쁘게 돼요. 머릿속에 배웠던 것들이 얼마나 떠오를 수 있으며, 설정 되게 높은 빈도로 배웠던 것들을 떠올리거나 배웠던 선생님 얼굴이 막 떠올랐다면, 그것은 아마도 시험이 잘 안 풀리고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구구절절 말이 길어졌네요. 오늘부터 해설은 흐름을 보여주고 상황을 보여주는 식으로 쓸 겁니다. 이전까지 썼던 방법과는 크게 다르지 않겠지만, 이제 정말 많이 남지 않았잖아요. 무엇을 새롭게 배우고 장착하는 것보다는 독해력은 계속 꾸준히 키울 수 있을 만큼 키워가되, 시험 때 문제가 될 수 있는 상황들, 자주 나타나는 글의 흐름들에 대해 익숙해져서 갑시다. 시험 때 모든 흐름과 상황이 다 보일 거라고 기대할 필요도 없어요. 우리는 그동안 쌓인 독해력으로 최선을 다해 읽을 건데, 다만 일부 지문이라도 몇 가지 상황에 익숙해진 덕에 잘 넘어가고, 몇 가지 흐름이 보여서 잘 읽히고 그 흐름 덕에 정보량이 줄어들고 그러면 될 것 같아요. 내용이 어렵지 않고, 흐름이 익숙하여 여러분들이 1, 2문단까지는 차분하게 흘러갔을 것 같아 두 문단을 묶어서 같이 설명합니다.

- ① 근로 장려 세제의 개념은 챙깁니다. 저소득 근로자에게 근로 장려금을 지급하는 것이라 합니다.
- ② 차분하게 읽어 내려가면 역소득세 제도로 간주된다는 것까지도 충분히 이해할 것입니다. 첫 문단에서는 그냥 근로 장려 세제 얘기할 거라고 화제 정도를 제시했습니다.
- ③ 두 번째 문단에서 우리가 죽어도 안 까먹는 단어 세 개 나왔습니다. 점증 구간 / 평탄 구간 / 점감 구간은 우리가 까먹지 않지요. 이것은 모두가 기억하는 것이지만, 조금 더 잘 읽으면 흐름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독해력이 좋은 학생들은 이것이 자연스럽게 들어왔을 것이고, 들어오지 않았던 학생들은 이 말을 기억해주고 읽었으면 합니다. 시험 때 이 흐름이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문제를 못 푸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평소 훈련 때 이런 연습을 해두면, 독해력이 많이 크는 경험을 하게 되리라 생각합니다. 제가 점증 / 평탄 / 점감과 같이 들어왔으면 좋겠는 말은 바로 '저소득 근로자들을 소득 수준에 따라'라는 말인데, 정확히는 '저소득 근로자들'이라는 말입니다. 진짜 별 것 아닌데, 이것 하나가 보이느냐 보이지

않느냐에 따라 글의 흐름이 정확히 잡힐 수 있는지가 결정됩니다. 우리가 그냥 자극적이고, 잘 들어오는 명사들만 기억하며 읽으면(즉 흐름을 놓치게 되면) 점증 / 평탄 / 점감을 일반적인 사람들 얘기로 생각해버릴 수 있다는 거죠. 즉 기억이 왜곡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점증이든 평탄이든 점감이든 일단 저소득 근로자들 얘기인 것입니다. 이런 것이 기출이든 사설이든 존재하는 흐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크게크게 읽다보면 조금씩 놓치는 것들인데, 그래서 각 문단 첫 번째 줄을 조금 차분히 읽는 훈련을 하시면 좋습니다. 보통 글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쓰게 되어 있거든요. 평소 공부할 때 기출 지문을 분석할 일이 있다면 몇 번 훈련해보세요. 보이지 않던 것이 보일 수 있고 독해력이 많이 발전할 수 있습니다.

④ 「 」 부분은 병렬이니까 가볍게 읽으면 되고 차분하게 읽어도 우리의 통상적인 사고와도 맞아 떨어져서 잘 이해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굳이 정리합니다. 단, 점증과 점감을 헷갈리시면 안 되니까 개념은 정확히 챙깁니다.

- 점증 = 소득이 가장 낮음 = 소득의 일정 비율 지급
- 평탄 = (보통사람인 듯) = 소득과 상관없이 일정 액수 지급
- 점감 = 소득이 가장 높음 = 소득에 높아지면 액수를 줄임

-----1, 2문단

(D) 그렇다면 근로 장려금은 각 구간의 근로자들에게 어떤 방식으로 영향을 미칠까? 일반적으로 시간당 임금의 상승은 근로 시간의 증감에 상반된 방식으로 영향을 미친다. 우선 시간당 임금의 상승은 여가의 기회비용을 높인다. 즉 근로자가 여가 시간을 한 시간 더 늘리면 그에 대한 대가로 포기해야 하는 임금도 증가한다. 이는 여가 시간을 줄이고 근로 시간을 늘리는 선택을 유도한다. 물론 시간당 임금이 낮아지면 여가의 기회비용을 낮춰 이와 반대되는 선택을 유도한다. 이를 (C) 대체 효과라고 한다. 반면 시간당 임금의 상승은 실제 소득 자체를 늘려 여가를 누릴 수 있는 금전적 여유도 증가시킨다. 이는 근로 시간을 줄이고 여가 시간을 늘리는 선택을 유도한다. 이를 (C) 소득 효과라고 한다. 따라서 대체 효과와 소득 효과 중 어느 것이 더 크게 작용하느냐에 따라 근로 시간의 증감이 결정된다.

[실전 독해] - 가볍게 읽어보고 챙길 내용만 챙기세요.

① 이번만큼은 결론부터 얘기할까요? 3문단의 첫 번째 문장 ‘근로장려금은 각 구간의 근로자들에게 어떤 방식으로 영향을 미칠까?’라는 말을 보고 밑으로 차분하게 내려가면서 대체 효과와 소득 효과의 개념을 읽었다면, 그리고 평소에 자신이 기출이나 지문의 흐름에 익숙한 사람이라면, 한 가지 느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아직 질문에 대한 답이 나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근로 장려금이 각 구간의 근로자(점증 / 평탄 / 점감)에게 이러한 방식으로 영향을 준다는 내용이 1도 나오지 않았다는 것이죠. 이게 익숙해지면 어떤 상태가 되냐면 읽다가 대체 효과 챙기실 거죠? 당연히 소득 효과의 개념도 챙기실 거죠? 근데 그래서 뭐? 어떤 방식으로 근로자들에게 영향을 미칠 건데? 라는 생각이 자연스럽게 들게 돼요. 아직 안 나온 거죠. 이후의 내용을 보셨다면 아마 4문단 이후가 그의 답이 될 거고요. 제가 오늘 해설하는 것들이 평소랑은 조금 다른 것 느껴지시나요? 그 동안은 제가 문장 단위로 하나하나 뭐다 뭐다 설명을 했다면, 오늘은 글을 읽는 상황 자체를 보여드리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 수업을 듣고 있는 학생들은 이것을 PT season 2에서 맨날 했었고요. 그런데 만약 3문단의 첫 문장. ‘근로장려금은 각 구간의 근로자들에게 어떤 방식으로 영향을 미칠까?’라는 말은 잘 읽었지만 대체 효과와 소득 효과의 설명을 읽느라 글의 흐름이나 방향을 잃었다면(잊어버렸다면), 그냥 그런 사람들에게는 3문단이 ‘대체 효과’ / ‘소득 효과’ 이렇게만 기억이 되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래도 문제는 잘 풀지 몰라요. 다만 글의 독해력이 완전히 달라지는 것이지요.

② 대체 효과의 개념은 챙깁니다. 단 평소처럼 말씀 드리면 명사가 설명보다 뒤에 있으니까 명사를 본 후, 다시 돌아가서 한번 챙겨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대체 효과와 소득 효과를 정리만 하겠습니다. 결국 근로장려금이 저소득층의(1문단 흐름) 각 구간 근로자들(2문단 흐름)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3문단 흐름)를 설명하기 위해 필요한 개념을 짚아주는 부분이 3문단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③ 대체 효과 - 시간 당 임금 상승 - 여가의 기회비용 상승 - 여가 줄이고 근로 시간 늘림(시간 당 임금 하락은 반대) 쉽게 얘기하면 시급 오르면 놀지 말고 일해서 돈 더 벌자는 마인드가 생긴다는 것이 대체 효과겠지요. 아마 이 지문은 계속 이슈가 되어 왔던 최저 시급과 관련하여 출제가 된 것 같네요.

④ 소득 효과 - 시간 당 임금 상승 - 실제 소득 증가 - 여가를 누릴 수 있음 - 여가 시간 증가 쉽게 얘기하면 시급이 올라서 돈을 많이 벌었으니 누릴 수 있는 게 더 많아졌다는 뜻이겠네요.

-----3문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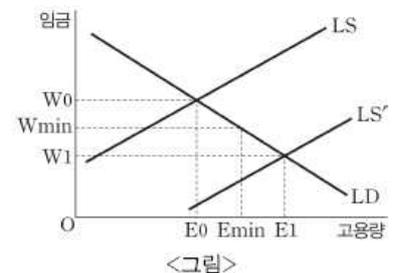
근로 장려 세제는 소득의 절대 액수가 적은 **점증 구간**의 근로자에게는 소득 효과보다 대체 효과가 더 크게 작용하도록 하여 근로 의욕을 고취할 가능성이 높다. 소득의 일정 비율을 근로 장려금으로 지급받으면 추가 근로에 대한 시간당 임금이 증가하는 셈이 되고 그만큼 여가의 기회비용도 커지기 때문이다. 반면 근로 장려금을 받아 실제 소득이 증가하지만 그 절대 액수가 적기 때문에 소득 효과는 미미하다. **평탄 구간**의 근로자의 경우에는 일정액의 근로 장려금을 받기 때문에 실제 소득이 증가하여 소득 효과는 발생하지만 추가 근로에 대한 시간당 임금이 변화하지 않기 때문에 대체 효과는 발생하지 않는다. **점감 구간**의 근로자에게는 추가 근로에 대한 시간당 임금이 감소하는 셈이므로 여가의 기회비용이 낮아지는 대체 효과가 발생하는 동시에 실제 소득이 증가하여 소득 효과가 발생한다. 결과적으로 저소득 근로자 전체의 근로 시간은 점증 구간에 있는 근로자들의 근로 시간 증가와, 평탄 및 점감 구간에 있는 근로자들의 근로 시간 감소의 상대적 차이에 의해 결정될 것이다.

[실전 독해] - 가볍게 읽어보고 챙길 내용만 챙기세요.

- ① 3문단 첫 문장의 질문에 대한 답이 나오는 부분입니다. 당연히 앞에서 깔아주던 내용이 전부 다 연결되는 부분이므로 중요하겠지요. 지문 자체의 난이도가 미친듯이 높지 않기 때문에 차분하게 읽어 내려가시면 됩니다. 제 개인적인 주관으로는 차분하게 읽으면서 80%이상은 이해를 해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구조가 명확해서 선택지를 보고 다시 돌아오기도 좋습니다.
- ② 점증 구간부터 갑시다. 점증 구간 근로자(소득 최저)에게 근로 장려금 주면, 대체 효과가 더 클 것입니다. 소득의 일정 비율을 받기 때문이겠지요.(2문단) 많이 일할수록 장려금을 더 많이 받을 테니 시급이 늘은 것과 같다는 것일 겁니다. 따라서 3문단에서 설명한 내용대로 대체 효과는 크게 작용하고, 다만 버는 돈이 크지 않으니 소득 효과는 미미할 것입니다. 여가를 즐길 정도의 돈이 되지는 않나봅니다.
- ③ 평탄 구간(보통 소득) 근로자들은 소득에 상관없이 일정 액수를 받습니다. 따라서 시간 당 시급이 늘은 것은 아니니까 대체 효과는 발생하지 않겠지요. 다만 실제 소득이 어쨌든 올랐으니 상대적으로 소득 효과가 발생하겠네요.
- ④ 점감 구간(소득 상대적으로 최고) 근로자들은 대체 효과도 발생하고 소득 효과도 발생합니다. 다만 점증 구간 근로자들과 다른 방향으로 대체 효과가 생기는 것이지요. 쉽게 말해 추가적인 근로에 대한 시간 당 시급이 줄어드는 것이니까 여가의 기회 비용이 낮아지는 대체 효과가 발생하는 거고,(점증 구간 근로자들은 여가의 기회 비용이 높아지는 대체 효과입니다.) 실제 소득도 올랐으니 소득 효과가 생기는 거죠. 우리는 흐름을 잊어서는 안 돼요. 지금 저소득 근로자에게 제공하는 근로 장려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전체 소득은 나아지는 거죠.
- ⑤ 마지막 문장에서 정리하네요. 저소득 근로자들의 근로 시간은 점증 구간의 근로자들이 얼마나 더 일하느냐, 반대로 실제 소득이 늘어 여가 생활을 늘릴 수 있게 된 평탄 구간의 근로자, 시간 당 시급이 낮아지고, 실제 소득이 늘어 여가 생활이 더욱 많아질 점감 구간의 근로자들의 상황을 고려해서 판단이 될 것이라 합니다.
- ⑥ 2문단에서 점증 / 평탄 / 점감이 기억이 나고, 3문단에서 대체 효과나 소득 효과를 차분하게 잘 읽고 이해하셨다면 아마 4문단 내용이 잘 이해되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4문단의 내용이 어려웠던 학생들은 이게 만약 시험이라면 일단 차분하게 내려가면서 이해할 것은 이해하고 기억할 것은 기억하며 흘러가면 됩니다. 즉 이것을 모두 이해하려다가 이 내용에 종속되어 흐름이 끊기는 것은 더욱 좋지 않습니다. 다만 그래도 공부할 때에는 4문단이 3문단 질문에 대한 답이고, 지금까지 깔아줬던 개념들을 다 정리하는 구간이기 때문에 차분하게 이해해보시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4문단

한편, 저소득 근로자 전체의 근로 시간이 늘어나 노동 공급이 증가하면 균형 임금이 낮아지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노동 역시 일종의 상품이므로 수요와 공급에 따라 균형 임금과 균형 고용량이 결정된다. <그림>에서 보듯 일정한 임금 수준 이하에서는 임금이 오를수록 노동 공급은 증가하고 노동 수요는 감소하므로 노동 공급 곡선(LS)은 우상향하고 노동 수요 곡선(LD)은 우하향한다. 그리고 두 곡선의 교차 지점에서 균형 임금(W0)과 균형 고용량(E0)이 결정된다. 이때 근로 장려 세제가 도입되어 저소득 근로자의 노동 공급이 증가하면, 노동 공급 곡선인 LS가 LS'로 이동한다. 근로 장려 세제가 도입되어 노동 공급이 증가한다는 것은 동일한 임금에 대해서도 노동을 공급하려는 근로자의 수가 증가한다는 뜻이므로, 노동 공급 곡선 자체가



<그림>

오른쪽으로 이동하는 것이다. 이 경우 균형 고용량은 $E1$ 로 증가하고 균형 임금은 $W1$ 로 감소한다. 이렇게 되면 근로 장려금이 저소득 근로자가 아닌, 이들을 고용한 사용자에게 이전되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최저 임금 제도를 도입하여 균형 임금이 어느 한도 이하로 @내려가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가령 W_{min} 을 최저 임금으로 설정하면 임금은 W_{min} 이하로 내려가지 않고 고용량 역시 E_{min} 까지만 증가할 것이다. 최저 임금 제도는 근로 장려 세제 도입에 따른 균형 임금의 하락을 방지하는 보완적인 기능을 수행한다.

[실전 독해] - 가볍게 읽어보고 챕길 내용만 챙기세요.

- ① 마지막 문단의 한편입니다. 당연히 시험에 출제가 됩니다. 다만 우리가 한편을 보지 않더라도 그래프가 있고, 당연히 물어본다고 생각하겠지요. 다만 흐름이 조금 바뀔 수 있다는 것 정도를 인지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 ② 마찬가지로 흐름을 우리가 조금 타면서 읽는다면, 앞에서 저소득 근로자 전체의 근로 시간이 어떻게 될 지가 나왔고, 이 5문단은 저소득 근로자 전체의 근로시간이 늘어났을 때 노동 공급이 증가하면 임금이 낮아질 수 있다는 얘기로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당연히 첫 문장 차분하게 읽으면서 내려갑니다. 굳이 한 마디 보태면 공급이 증가하면 당연히 가격이 낮아지는 것이니까 이 첫 문장은 경제학적인 배경 지식으로도 충분히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 ③ <그림> 보라고 하면 봐야 하겠지요? 이 지문과 상관없이 분명히 이렇게 그래프를 설명하는 글에서는 어떤 조건에서 그래프가 어떤 결과, 어떤 형태가 되는 지 설명할 것입니다. 모든 내용을 다 이해하면 좋겠지만, 만약 모든 내용을 다 이해할 수 없다면, 지문의 내용과 그래프를 대응하면서 '결과'는 기억하고, 다만 이 그래프가 왜 이렇게 되는지에 대해서는 이해가 되면 이해를 하면 좋겠지만 안 되면 일단 내려가야 합니다. 우리는 일단 이런 상황에서 그래프의 결과가 이렇게 된다는 것 정도는 반드시 챙겨야 합니다. LS가 우상향(비례)하고, LD가 우하향(반비례)하는지 우리는 확인했습니다.
- ④ 예전에도 한 번 말씀드렸지만 그래프의 교점은 무조건 출제가 됩니다. $W0$ (균형 임금), $E0$ (균형 고용량) 눈으로 확인 합니다.
- ⑤ '이때' 이후는 언제나 중요합니다. 신경써서 읽읍시다. 내용상으로 볼 때, 이전까지 그래프를 확인하며 이게 뭐다 이게 뭐다 체크를 하셨다면 지금부터 뭔가 이해해야 될 것이 나오는 거죠. 근로 장려금이 지급되면 저소득 근로자의 노동 공급은 늘어날 것이고, 그러면 $LS \rightarrow LS'$ 가 된답니다.(일단 눈으로 그래프를 확인하는 것이지요. 왜 이렇게 되는지는 나중 문제입니다.)
- ⑥ 「 」 부분이 근로 장려금이 지급 되었을 때 왜 LS 가 LS' 가 되는 지를 설명하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을 이해할 수 있으면 그냥 이해를 하는 것이고, 이해가 안 되면 일단 내려가야 한다는 것이 제가 아까 ③에서 설명한 내용입니다. 그래프를 설명하는 부분을 이해함에 있어서 결과는 반드시 눈으로 확인하고 다만 왜 이렇게 되는지에 대해 이해가 안 되면 내려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굳이 설명을 하자면, 근로 장려 세제가 도입되었을 때 노동 공급이 증가한다는 것은 동일 임금이어도 근로 장려금을 받기 위해 일하는 근로자의 수가 늘어난다는 것이므로 그래프 전체가 오른쪽으로 이동하는 형태를 보인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W0$ 로 임금이 동일한 상황이어도 근로 장려 세제가 도입되면 LS' 의 어느 지점으로 고용량은 늘어난다는 것이지요. 이렇게 그래프의 개형을 그리다보면 LS' 처럼 오른쪽으로 이동한 그래프가 나올 것이다. 뭐 이런 얘기인데. 이해가 자연스럽게 되면 하고, 아니면 일단 우리는 근로 장려금 발생하면 LS' 처럼 그래프가 오른쪽으로 간대. 정도의 결과만 그래프로 확인하고 내려가셔도 됩니다.
- ⑦ 계속 확인입니다. $E1$ (증가한 균형 고용량), $W1$ (감소한 균형 임금)을 확인합니다.
- ⑧ 결국 이렇게 되면 임금이 하락하는 결과가 나타나므로 정부에서 힘들게 저소득 근로자들에게 근로 장려금 지원해줬더니, 이 혜택을 사용자들과 나눠먹게 되는 현상이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근로 장려금은 저소득 근로자들이 갖지요. 그러나 임금이 하락하니까 결국 이 혜택을 사용자가 보게 된다 뭐 이런 의미가 될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편하게 이 상황을 이해할 수 있는 것은 2009학년도 6월 모평에 출제되었던 '조세 전가' 지문 때문입니다. 실어둘 테니 꼭 한 번 풀어보셨으면 합니다.
- ⑨ 이러한 '전가' 혹은 '근로 장려금 이전' 문제 해결을 하기 위해 최저 임금제를 한다고 하네요. 마찬가지로 그 이후에 W_{min} 과 E_{min} 을 확인하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글의 흐름이라는 것에 대해 조금 더 신경 써서 설명해봤습니다. 이미 독해력이 좋은 학생들은 이 흐름이라는 것이 굳이 신경쓰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들어올 것입니다. 그러나 독해력이 아직 이 정도에 미치지 못하거나, 비문학이 약점인 학생들은 기출이나 이런 지문을 풀고 나서 지문을 분석할 때, 이런 식으로 안 보이던 흐름들을 찾아가는 연습을 하다보면 실제 시험 때도 몇 가지가 보일 것입니다. 이 몇 가지가 지문 전체의 이해도를 확 바꿀 수도 있어요. 어차피 실제 시험장에 가면 어떤 방법이 떠오르는 것이 아니라 1년 동안 내가 열심히 노력했고 키워왔던 독해력 가지고 들어가는 겁니다. 그냥 잘 읽고 잘 푸는 거예요. 그때 이런 흐름들이 보일 수 있다면 분명히 글을 읽는 데에도 충분히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5문단

[추가 기출 분석] 2009학년도 6월 모평 - 조세 전가(경제 / 그래프 설명 차분히 읽고 이해하기)

[1~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정부는 조세를 부과해 재정 사업을 위한 재원을 마련한다. 그런데 조세 정책의 원칙 중 하나가 공평 과세, 즉 조세 부담의 공평한 분배이기 때문에 누구에게 얼마의 조세를 부과할 것인가는 매우 중요하다. 정부는 특정 조세에 대한 납부자를 결정하게 되면 조세법을 통해 납부 의무를 지운다. 그러나 실제로는 납부자의 조세 부담이 타인에게 전가되는 현상이 흔히 발생하는데, 이를 ‘조세전가(租稅轉嫁)’라고 한다.

[A] 정부가 불펜에 자루당 100원의 물품세를 생산자에게 부과한다고 하자. 세금 부과 전에 자루당 1,500원에 100만 자루가 거래되고 있었다면 생산자는 총 1억 원의 세금을 납부해야 할 것이다. 이로 인해 손실을 입게 될 생산자는 1,500원이라는 가격에 불만을 갖게 되므로 가격을 100원 더 올리려고 한다. 생산자가 불만을 갖게 되면 가격이 상승하기 시작한다. 그러나 가격이 한없이 올라가는 것은 아니다. 가격 상승으로 생산자의 불만이 누그러지지만 반대로 소비자의 불만이 증가하기 때문이다. 결국 시장의 가격 조정 과정을 통해 양측의 상반된 힘이 균형을 이루는 지점에 이르게 되며, 1,500원~1,600원 사이에서 새로운 가격이 형성된다. 즉 생산자는 법적 납부자로서 모든 세금을 납부하겠지만 가격이 상승하기 때문에 자루당 실제 부담하는 세금을 그만큼 줄이게 되는 셈이다. 반면에 소비자는 더 높은 가격을 지불하게 되므로 가격이 상승한 만큼 세금을 부담하는 셈이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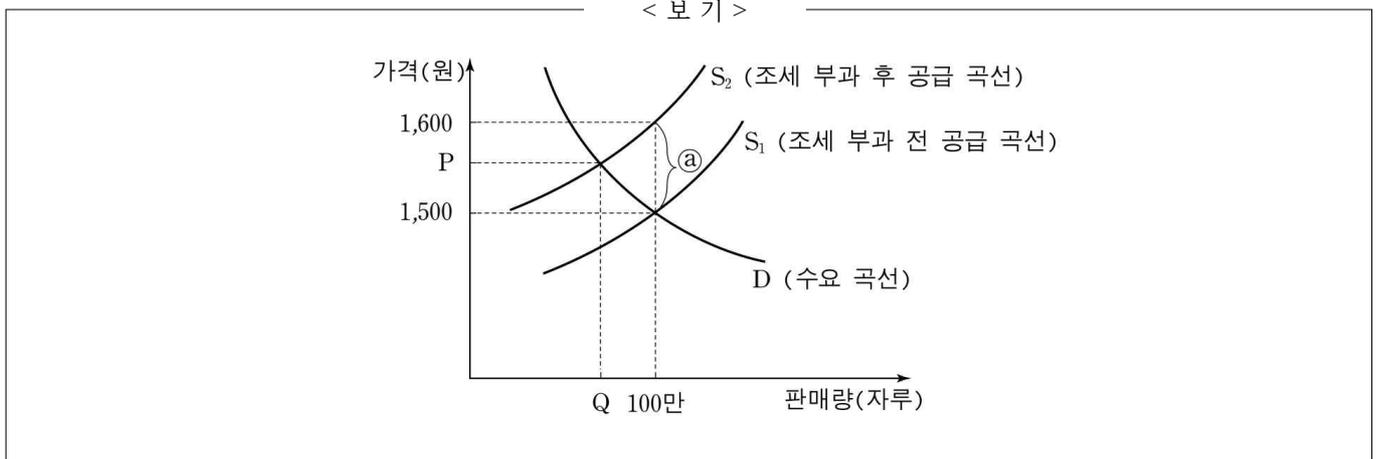
한편, 조세전가가 한 방향으로만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동일한 세금을 소비자에게 부과한다고 하자. 소비자는 자루당 1,500원을 생산자에게 지불해야 하므로 실제로는 1,600원을 지출해야 한다. 이에 대해 소비자는 불만을 가질 수밖에 없다. 소비자의 불만이 시장에 반영되면 시장의 가격 조정 기능이 작동하여 가격이 하락하게 되며, 최종적으로 소비자는 가격 하락 폭만큼 세금 부담을 덜 수 있게 된다. 즉 정부가 소비자에게 세금을 부과한다 해도 생산자에게 조세가 전가된다.

그렇다면 양측의 실제 부담 비중은 어떻게 결정될까? 이는 소비자나 생산자가 제품 가격의 변화에 어떤 반응을 보이는가에 따라 달라진다. 예를 들어 가격 변화에도 불구하고 소비자가 구입량을 크게 바꾸지 못하는 경우, 어느 측에 세금을 부과하든 ① 소비자가 더 많은 세금을 부담하게 된다. 생산자에게 세금을 부과할 때에는 가격 상승 요구가 더욱 강하게 반영되어 새로운 가격은 원래보다 훨씬 높은 수준에서 형성될 것이다. 즉 생산자의 세금이 소비자에게 많이 전가된다. 그러나 소비자에게 세금을 부과할 때에는 가격 하락 요구가 잘 반영되지 않아 가격이 크게 떨어지지 않는다. 그로 인해 소비자가 대부분의 세금을 부담하게 된다. 한편, 가격 변화에도 불구하고 생산자가 생산량을 크게 바꾸지 못하는 경우에는 누구에게 세금이 부과되든 ② 생산자가 더 많은 세금을 부담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조세전가 현상으로 인해 정부는 누가 진정한 조세 부담자인지를 파악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

1. ‘조세전가’에 대해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 ① 소비자나 생산자가 제품 가격의 변화에 어떤 반응을 보이는가에 따라 조세 부담 비중이 달라진다.
- ② 누구에게 세금이 부과되든 소비자와 생산자가 동시에 조세전가의 혜택을 누린다.
- ③ 조세전가가 발생하면 그에 따라 물품세의 단위당 조세액이 달라질 수밖에 없다.
- ④ 생산자에게 조세가 부과될 경우 결국 소비자가 세금을 전액 부담하게 된다.
- ⑤ 조세전가가 발생하면 시장의 가격 조정 기능이 상실된다.

2. [A]를 <보기>와 같이 그래프로 그렸다. 이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조세 부과 후 소비자는 P를 자루당 가격으로 지불한다.
- ② 조세 부과 후 생산자는 ①을 자루당 조세액으로 납부한다.
- ③ 조세를 100원에서 50원으로 줄이면 공급 곡선 S₁이 오른쪽 아래로 이동한다.
- ④ 소비자의 자루당 세금 부담액은 P에서 1,500원을 뺀 것이다.
- ⑤ 조세 부과로 판매량이 100만 자루에서 Q로 줄어들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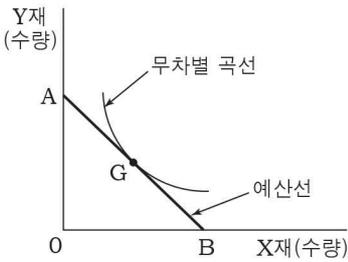
3. ㉠, ㉡에 해당하는 사례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 : 바나나 가격이 오르면 곧 오렌지를 구매하는 소비자
- ② ㉠ : 커피 가격이 오르면 커피 구입을 쉽게 줄이는 소비자
- ③ ㉠ : 상표와 상관없이 가장 저렴한 샴푸를 구매하는 소비자
- ④ ㉡ : 사과를 오래 보관할 수 있는 시설을 소유한 농장주
- ⑤ ㉡ : 유행이 바뀌어 재고를 처분해야 하는 액세서리 생산자

[추가 문제 풀이] 대체 효과와 소득 효과

[4~7]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저소득 계층을 위한 지원 방안으로는 대상자에게 현금을 직접 지급하는 소득보조, 생활필수품의 가격을 할인해 주는 가격 보조 등이 있다.



<그림>

이 제도들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대체효과와 소득효과 개념을 아는 것이 필요하다. 어떤 소비자가 X재와 Y재만을 구입한다고 할 때, 한정된 소득 범위 내에서 최대로 구입 가능한 X재와 Y재의 수량을 나타낸 선을 예산선이라고 한다. 또한 X재, Y재를 함께 구매했을 때, 만족도가 동일하게 나타나는 X재와 Y재 수량을 조합한 선을 무차별 곡선이라고 한다. 특별한 조건이 없다면 최적의 소비선택은 무차별 곡선과 예산선의 접점(G)에서 이루어진다. 그런데 소득보조나 가격보조가 실시되면 실질 소득의 증가로 예산선이 변하고, 이에 따라 소비자마다 만족하는 상품 조합도 변하게 된다. 즉 예산선과 무차별 곡선의 변화에 따라 각 소비자의 최적 선택지점도 변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그림>과 같은 상황에서 X재와 Y재가 정상재*일 경우, Y재에 대한 X재의 상대적 가격이 ①떨어지면, 가격비율에 변화가 생기게 되고 예산선이 바뀌게 된다. 이때 상품 조합도 달라져 최적 선택지점 역시 변하게 되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가격이 하락한 X재의 수요는 늘리게 되고 Y재의 수요는 늘리지 않게 되는 것을 대체효과라고 한다. 또한 X재의 가격이 하락함으로써 예전에 살 수 없었던, X재와 Y재의 상품 조합을 살 수 있게 되었으므로 소비자의 실질 소득이 예전보다 늘어난 것을 소득효과라고 한다. 그러나 상품 가격에는 변화가 없고 소득만 증가하면 상품들 간의 가격비율은 변하지 않으므로, X재와 Y재의 수요는 모두 늘어날 수 있게 된다. 이 경우에는 대체효과가 없고 소득효과만 발생하게 된다.

식품과 비식품 구입비를 지출하는 사람에게, 정부가 월 30만 원의 소득보조를 시행했다고 가정해 보자. 어떤 물품을 구입하든 간에 보조금 30만 원을 지출하는 데 그는 아무런 제약도 받지 않는다. 따라서 그의 입장에서는 식품과 비식품의 가격 비율에는 변화가 없으므로 대체효과는 없으며, 다만 30만 원만큼의 소득효과만 발생하는 것이다. 반면 구입하려는 식품에 대해 정부가 가격을 보조해 주는 제도를 시행했을 경우 비식품보다 식품의 소비를 늘리게 되는 경향이 뚜렷하므로 대체효과도 함께 발생하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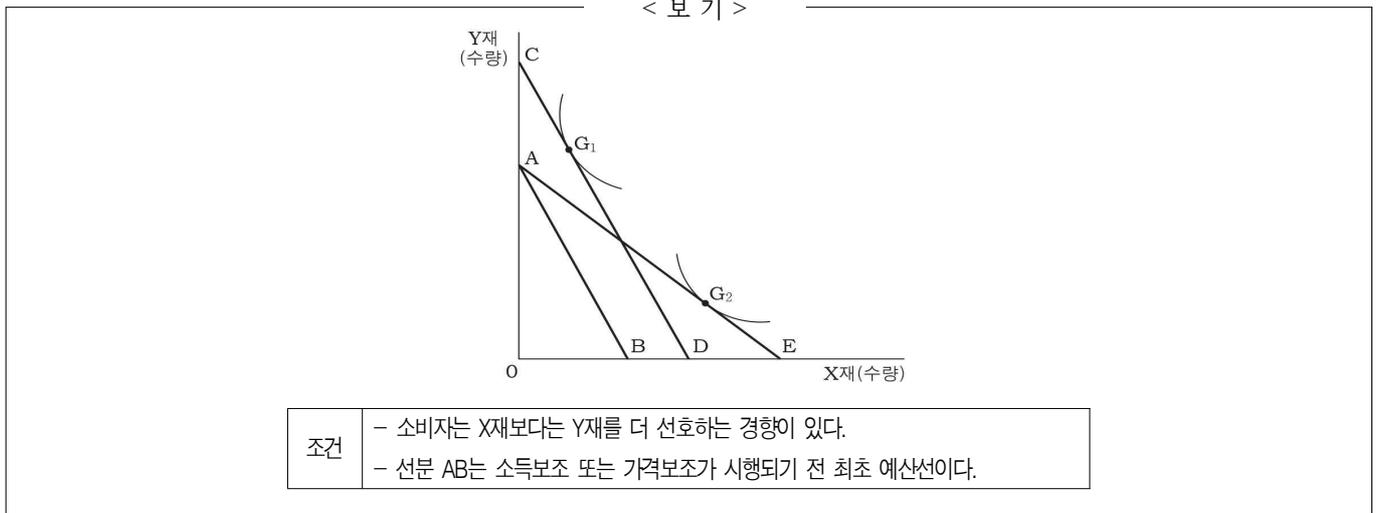
그런데 소득 범위 내에서 식품보다 비식품 구입을 선호하는 성향을 지닌 사람의 입장에서는 식품에 대한 가격보조가 소득보조보다 비효율적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왜냐하면 소득보조를 받으면 주어진 예산 내에서 자신이 선호하는 비식품을 더 많이 구입할 수 있지만, 식품에 대한 가격보조를 받으면 자신의 선호도와 상관없이 일시적으로 식품을 구매할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반면 정부 입장에서는 소비자의 행동 예측이 어려운 소득보조보다 소비자 수요를 가시적으로 예측할 수 있는 가격보조가 경제 정책을 추진하는 데 더 효율적이라고 할 수 있다.

*정상재: 소득이 증가할 때 수요량이 증가하는 재화.

4. 밑글을 통해 파악할 수 있는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무차별 곡선의 정의
- ② 상품 조합의 유형별 특징
- ③ 실질 소득과 예산선의 관계
- ④ 최적 선택지점의 변화 원인
- ⑤ 가격보조와 소득보조의 차이

5.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의 자료를 해석했을 때,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예산선이 AB에서 AE로 이동했다면, 소비자의 실질 소득은 늘어났다고 할 수 있겠군.
- ② 예산선이 AB에서 AE로 이동했다면, 소비자는 선호도와 상관없이 일시적으로 X재를 더 많이 구매할 수도 있겠군.
- ③ 예산선이 AB에서 CD로 이동했다면, X재에 대한 Y재의 상대적 가격비율의 변화가 생겼겠군.
- ④ 예산선이 AB에서 CD로 이동했다면, AE로 이동할 때보다 정부는 소비자의 소비 행동을 더 예측하기 어렵겠군.
- ⑤ 예산선이 AB에서 CD로 이동했다면, AE로 이동할 때보다 소비자의 입장에서는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군.

6. 윗글을 읽은 학생이 <보기>의 신문 기사에 대해 보일 수 있는 반응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보 기 >

□□ 신문 ○○○○년 ○월 ○일

정부는 서민 생활 안정에 도움을 주기 위해 하반기부터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쌀과 라면 중, 쌀에 대한 가격 할인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① 정책이 시행된다고 하더라도 ㉠의 최적 선택지점은 변하지 않을 것이다.
- ② 정책이 시행된다면 ㉠에게는 대체효과와 소득효과가 모두 발생할 것이다.
- ③ 정책이 시행된다고 하더라도 쌀에 대한 ㉠의 수요에는 변화가 없을 것이다.
- ④ 정책이 시행된다면 ㉠의 예산선에는 변함이 없지만 무차별 곡선은 변화할 것이다.
- ⑤ 정책이 시행된다고 하더라도 ㉠이 선택할 수 있는 상품 조합은 변하지 않을 것이다.

7. ㉠의 문맥적 의미와 가장 유사한 것은?

- ① 쌀이 떨어져 두 끼를 라면으로 때웠다.
- ② 감기가 떨어지지 않아 큰 고생을 하였다.
- ③ 갈수록 성적이 떨어져서 대책을 세워야 한다.
- ④ 해가 떨어지기 전에 이 일을 마치도록 하여라.
- ⑤ 파란불 신호가 떨어지자 사람들이 건널목을 건넜다.

[정답 및 해설]

1. ①

정답해설 : 이 글에 소개되고 있는 조세전가에 대해 정확한 이해가 이루어졌는지 파악하는 문제이다. 조세전가가 어떤 과정을 통해 이루어지는지 파악할 수 있어야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이기도 하다. 네 번째 문단에서 양측의 실제 부담 비중에 대해 궁금증을 내보이면서, 소비자나 생산자가 제품 가격의 변화에 어떤 반응을 보이는가에 따라 그 비중이 달라진다고 언급한 부분이 나온다. 이런 사실은 조세전가의 핵심 사항에 해당하며 곧 ①의 내용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오답풀이]

- ② 조세전가의 혜택은 소비자가 누릴 수도 있고 생산자가 누릴 수도 있다.
- ③ 조세전가란 정해진 조세액 중의 일부가 타인에게 전가되는 것이다.
- ④ 생산자에게 조세가 부담될 경우 생산자의 조세 중 일부가 소비자에게 전가되는 것이다.
- ⑤ 조세전가가 일어나면 시장의 가격 조정 기능에 따라 새로운 가격이 형성된다.

2. ③

정답해설 : A는 정부가 조세를 생산자에게 부과했을 때의 경우를 사례로 들어 조세전가를 설명한 것이다. 물품세가 부과된 생산자는 세금에 대한 부담 때문에 상품 가격을 올리고자 할 것이고, 가격이 오르면 소비자와 갈등을 초래한다. 이런 갈등은 결국 시장의 가격 조정 과정을 통해 양측의 힘이 균형을 이루며 새로운 가격을 형성하게 되는데, 결과적으로 이것은 생산자에게만 부과되었던 물품세가 어느 정도 소비자에게 전가되는 것이다. 그런데 100원이었던 조세를 50원으로 줄인다는 것은 조세의 부담을 다소 낮춘다는 것이지, 조세 자체를 없앤다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S1은 왼쪽 위로 올라가되, S2보다는 낮은 곳에 위치하게 될 것이다.

[오답풀이]

- ① 생산자와 소비자는 시장의 가격 조정 과정을 통해 P를 형성하게 되고 소비자는 P를 가격으로 지불한다.
- ② 생산자는 부과된 세금 100원을 모두 납부한다. 단지 가격 상승이 있으므로 세금에 대한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게 되는 것이다.
- ④ 소비자의 세금 부담액은 원래 상품의 가격 1500원에서 초과된 금액이므로, P에서 1500원을 뺀 것이다.
- ⑤ 조세를 부과하면 상품의 가격이 올라가므로 상품 판매는 줄어들게 된다. 시장 가격의 형성된 부분의 가로 좌표가 판매량에 해당한다.

3. ⑤

정답해설 : 가격 변화에도 불구하고 소비자가 소비량을 줄이지 못하는 경우에는 어느 측에 세금을 부과해도 소비자가 더 많은 세금을 부담하게 된다. 또 가격 변화에도 불구하고 생산자가 생산량을 크게 바꾸지 못하는 경우에는 누구에게 세금이 부과되든 생산자가 더 많은 세금을 부담하게 된다. 유행이 바뀌어 재고를 처분해야 하는 액세서리 생산자는 이미 생산된 물건을 팔아야 하는 사람이므로 제시한 상품수를 조절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이는 곧 생산량을 바꿀 수 없다는 것을 말한다. 그러므로 ⑤는 ㉔의 예로 적절하다.

[오답풀이]

- ① 바나나 가격 변동에 따라 소비자가 소비를 조절하는 경우이다.
- ② 커피 가격의 변동에 따라 커피의 소비를 조절하는 경우이다.
- ③ 언제나 더 싼 제품을 사고자 하는 사람이다.
- ④ 저장시설이 있기 때문에 가격에 따라 사과와 출시량을 조절할 수 있는 경우이다.

4. ②

정답해설 : 이 글은 대체효과와 소득효과를 중심으로 소득보조와 가격보조의 특징을 설명하고 있다. 2문단의 ‘또한 X재, Y재를 함께 구매했을 때, 만족도가 동일하게 나타나는 X재, Y재 수량을 조합한 선을 무차별 곡선이라고 한다.’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상품 조합의 유형별 특징은 제시되지 않았다.

[오답풀이]

- ① 2문단의 ‘만족도가 동일하게 나타나는 X재, Y재 수량을 조합한 선을 무차별 곡선이라고 한다.’에서 무차별 곡선의 정의를 설명하고 있다.
- ③ 2문단의 ‘그런데 소득보조나 가격보조가 실시되면 실질 소득의 증가로 예산선이 변하고, 이에 따라 소비자가 만족하는 상품 조합도 변하게 된다.’를 통해 예산선과 실질 소득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다.

- ④ 2문단의 '예산선과 무차별 곡선의 변화에 따라 각 소비자의 최적 선택지점도 변하는 것이다.'를 통해 최적 선택지점이 변화하는 원인을 설명하고 있다.
- ⑤ 1문단의 '저소득 계층을 위한 지원 방안으로는 대상자에게 현금을 직접 지급하는 소득보조, 생활필수품의 가격을 할인해 주는 가격보조 등이 있다.'를 통해 가격보조와 소득보조의 차이를 설명하고 있다.

5. ③

정답해설 : CD는 소득보조가 시행된 경우 나타나는 예산선이고, AE는 가격보조가 시행된 경우 나타나는 예산선이다. 3문단의 '상품 가격에는 변화가 없고 소득만 증가하면 상품들 간의 가격비율은 변하지 않으므로, X재와 Y재의 수요는 모두 늘어날 수 있게 된다.'를 통해 소득만 증가하는 소득보조의 경우 가격비율에는 변화가 없음을 확인할 수 있다.

[오답풀이]

- ① 2문단의 '그런데 소득보조나 가격보조가 실시되면 실질 소득의 증가로 예산선이 변하고, 이에 따라 소비자마다 만족하는 상품 조합도 변하게 된다.'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② 5문단의 '왜냐하면 소득보조를 받으면 주어진 예산 내에서 자신이 선호하는 비식품을 더 많이 구입할 수 있지만, 식품에 대한 가격보조를 받으면 자신의 선호도와 상관없이 일시적으로 식품을 구매할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이다.'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④ 5문단의 '반면 정부 입장에서는 소비자의 행동 예측이 어려운 소득보조보다 소비자의 수요를 가시적으로 예측할 수 있는 가격보조가 경제 정책을 추진하는 데 더 효율적이라고 할 수 있다.'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⑤ 5문단의 '그런데 소득 범위 내에서 식품보다 비식품 구입을 선호하는 성향을 지닌 사람의 입장에서는 식품에 대한 가격보조가 소득보조보다 비효율적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6. ②

정답해설 : <보기>의 신문 기사는 특정 물품에 대한 가격보조를 설명하고 있다. 4문단의 '반면 구입하려는 식품에 대해 정부가 가격을 보조해 주는 제도를 시행했을 경우 비식품보다 식품의 소비를 늘리게 되는 경향이 뚜렷하므로 대체효과도 함께 발생하는 것이다.'를 통해 신문 기사의 내용과 같이 가격보조가 실시되면, 대체효과와 소득효과가 함께 발생함을 알 수 있다.

[오답풀이]

- ① 2문단의 '그런데 소득보조나 가격보조가 실시되면 실질 소득의 증가로 예산선이 변하고, 이에 따라 소비자마다 만족하는 상품 조합도 변하게 된다. 즉 예산선과 무차별 곡선의 변화에 따라 각 소비자의 최적 선택지점도 변하는 것이다.'의 내용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③ 5문단의 '왜냐하면 소득보조를 받으면 주어진 예산 내에서 자신이 선호하는 비식품을 더 많이 구입할 수 있지만, 식품에 대한 가격보조를 받으면 자신의 선호도와 상관없이 일시적으로 식품을 구매할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이다.'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7. ③

정답해설 : ㉠의 '떨어지면'은 '값, 기온, 수준, 형세 따위가 낮아지거나 내려간다.'는 의미이다.

[오답풀이]

- ① 뒤를 대지 못하여 남아 있는 것이 없게 된다는 의미이다.
- ② 병이나 습관 따위가 없어진다는 의미이다.
- ④ 해, 달이 서쪽으로 진다는 의미이다.
- ⑤ 지정된 신호 따위가 나타난다는 의미이다.

이번 주 역시 흘러가느라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감기 조심하시고, 이미 감기에 걸린 학생들이 있다면 꼭 쉬면서 얼른 다 낫길 바랍니다.

매년 이 시기쯤이 되면 알게 모르게 주변 사람들과 갈등이 생기거나 표현은 못 해도 속으로 쌓이는 것들이 생기는 학생들이 많아지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사소한 말 한 마디에 마음이 다칠 수 있는 그런 예민한 시기니까요.

특히 입시라는 것에 있어서는 더더구나 그럴 시기입니다.

그럴 때일수록 남을 신경 쓰기보다는 나의 평정심을 유지하고 내 그대로의 상태를 지속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의 순류를 유지하는 것이 곧 남에게는 역류가 되는 법입니다.

'반복에 지치지 않는 자가 반드시 성취한다.'

30.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밖에서 꾸민 '나'의 모습을 포기하게 한다.
- ② ㉡: '환자'를 간병하는 '친구'의 모습을 비유적으로 나타낸다.
- ③ ㉢: '나'와 '명애'의 손이 몸에 닿았을 때 보인 '환자'의 반응이다.
- ④ ㉣: '환자'의 돌발적인 행위에 대한 '친구'의 질책이 담긴 표현이다.
- ⑤ ㉤: '나'가 해방감을 느끼게 되는 계기이다.

31. [은하계]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나'가 지닌 슬픔의 크기를 부각하는 역할을 한다.
- ② '창환'의 죽음을 야기한 사건을 환기하는 역할을 한다.
- ③ '나'가 '형남'에 대해 느끼는 고마움을 상징적으로 형상화하는 역할을 한다.
- ④ '친구'가 환자를 돌보는 모습에서 느낀 '나'의 감동을 드러내는 역할을 한다.
- ⑤ '나'의 인식 범위를 초과하는 대상으로 지나온 세월을 성찰하게 하는 역할을 한다.

32. <보기>를 통해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보 기 >

애도는 애착을 가졌던 대상의 부재로 인해 겪게 되는 상실감에서 벗어나 마음의 평정을 회복하는 과정을 의미한다. 대상의 부재에서 기인하는 정신적 고통으로부터 도피하기 위해 대상이 부재하는 상황을 부정하려는 경향을 보이기도 한다. 그러나 대상의 부재를 있는 그대로 수용하게 될 때 점차 마음의 평정을 회복할 수 있게 된다. 전화 통화 상황을 설정하여 인물의 내밀한 이야기를 들려주는 서술 방식을 취하고 있는 박완서의 '나의 가장 나중 지니인 것'은 아들의 죽음을 가슴에 안고 살아가는 한 어머니의 애도의 과정을 다룬 작품으로 볼 수 있다.

- ① '나'가 '창환아, 에미 왔다'라고 말하며 '활기 넘치는 소리로 말을 걸며' 집으로 들어가는 것은, 아들의 죽음을 부정하려는 행위로 볼 수 있겠군.
- ② '이제 와서 웬 약한 소리냐구요?'나 '느닷없이 웬 은하계냐구요?'는, 통화하고 있는 상대방이 한 말에 대한 '나'의 반응으로 볼 수 있겠군.
- ③ '아무렇지 않지 않은 사람이 아무렇지도 않아 보'일 수 있었던 것은, '나'가 아들의 죽음이라는 상실감에서 벗어나 마음의 평정을 회복했기 때문이겠군.
- ④ '별안간 그 친구가 부러워' '견딜 수 없는 질투'를 느끼며 '대성봉곡, 방성대곡보다 더 큰 울음을 울었다는 것에서, 아들의 죽음으로 인한 '나'의 정신적 고통을 짐작해 볼 수 있군.
- ⑤ '나'가 '이제부터 울고 싶을 때 울면서 살겠다'는 것은, 아들의 죽음을 받아들이며 살겠다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겠군.

[33~36]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사람은 해발 1만 피트보다 높은 곳에 있으면 지표면보다 낮은 기압으로 인해 감압증이나 저산소증 같은 신체적 이상 증상을 겪는다. 하지만 그보다 훨씬 높은 2만 피트 이상의 고도에서 운항하는 항공기 승객들은 이러한 증상을 겪지 않는다. 항공기에는 객실의 기압을 지표면과 비슷한 수준으로 만들어 주는 여압 시스템이 작동하고 있기 때문이다.

제트 엔진을 사용하는 항공기의 경우 여압 시스템에서 주로 활용되는 것은 블리드 공기이다. 압축 공기에 연료를 분사하여 점화시키면 엄청나게 고온·고압인 기체가 발생한다. 제트 엔진은 이렇게 발생한 기체를 분출시켜 추진력을 얻는 엔진을 통칭한다. 블리드 공기는 외부에서 흡입되어 엔진의 압축기에서 압축된 채, 연료가 분사되어 점화되기 직전에 있는 공기를 일컫는다. 여압 시스템은 이미 상당한 고온·고압 상태에 있는 이 블리드 공기를 또 다른 흡입구로 들어온 차가운 공기와 섞어 냉각시키는 동시에 적정 수준의 압력으로 감압한 다음 객실에 공급하는 방식으로, 객실 기압을 지표면과 비슷하게 유지한다.

여압 시스템은 조종사가 직접 객실 기압을 조절하는 수동 모드를 비롯한 다양한 모드로 작동하지만 두 가지 모드가 대표적이다. 동압(同壓) 모드는 객실 기압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모드로, 조종사는 동압 모드에 적용되는 객실 기압을 설정할 수 있다. 이때 객실 기압은 고도(高度)로 환산되어 계기판에 표시되는데, 이를 객실 고도라고 한다. 즉 객실 고도가 8천 피트라는 것은 객실 기압이 해발 8천 피트 상공의 기압인 10.9psi라는 것을 의미한다. 민간 항공기에서는 인간이 산소마스크 같은 보조 장치 없이 정상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최대 고도가 1만 피트 정도인 점을 고려하여 대체로 7~8천 피트를 동압 모드의 객실 고도로 설정한다.

통상적으로 조종사는 항공기가 이륙하여 해발 5천 피트 상공에 이르러 동압 모드를 활성화한다. 그러면 항공기의 실제 고도와 그 고도에 해당하는 항공기 외부의 기압 같은 여러 정보들이 실시간으로 객실 기압 제어 장치에 입력되어 자동적으로 객실 기압이 조절된다. 항공기에서는 여압 시스템의 작동 여부와 무관하게 거의 밀폐 상태로 되어 있는 객실에 주기적으로 신선한 블리드 공기를 공급하고 그 일부를 배출하는 방식으로 환기 시스템이 가동되고 있는데, 공기를 배출하는 장치 중 하나가 동체 뒷부분에 달린 아웃플로어 밸브이다. 이 아웃플로어 밸브의 주된 역할이 바로 객실 기압을 조절하는 것이다. 즉 컴퓨터로 이루어진 객실 기압 제어 장치가, 실시간으로 입력된 여러 가지 수치 정보들을 연산한 다음, 이 밸브를 적절하게 열고 닫으면서 객실 기압을 조절하여 미리 설정된 수치에 맞추는 것이다. 이때 객실 기압이 지나치게 빠르게 바뀌면 승객의 신체에 무리가 가기 때문에 일정한 변화율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 객실 고도의 분당 변화율을 나타내는 객실 상승률이나 객실 하강률이 통상 500 fpm 이하로 자동적으로 제한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동차압(同差壓) 모드는 객실 기압과 항공기 외부 기압의 차이인 객실 차압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모드로, 항공기가 견딜

수 있는 객실 차압에 한도가 있기 때문에 필요한 모드이다. 항공기는 운항 고도를 높일수록 연료 효율이 높고 변화무쌍한 기상 상태에 의해 방해받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객실 고도를 높이는 데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항공기가 지나치게 높은 고도에서 운항하면 객실 차압이 매우 커지게 된다. 항공기가 견딜 수 있는 객실 차압의 한도를 높이려면 동체를 더 튼튼한 재질로 두껍게 만들어야 하지만 이렇게 하면 항공기가 무거워져 연료 효율이 떨어지는 단점이 있다. 이러한 이유로 민간 항공기의 운항 고도는 최대 4만 피트 정도로 제한되고 객실 차압에도 일정한 한도가 있는 것이다.

만약 객실 차압이 항공기가 견딜 수 있는 최대치를 초과하면, 동체 내부에서 밖으로 작용하는 압력에 의해 창이나 문 같은 동체의 약한 부분이 파손될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민간 항공기는 허용 가능한 객실 차압을 미리 설정하고 운항한다. 즉 동압 모드로 운항하던 항공기의 객실 차압이 일정 수치에 이르면 자동적으로 동차압 모드로 변환되도록 미리 설정하는 것이다. 단거리 민간 항공기에 비해 튼튼한 재질로 만들어지는 장거리 민간 항공기의 경우는 동차압 모드로 자동 변환되도록 하는 객실 차압이 대개 6psi로 설정된다. 동차압 모드일 때에도 객실 기압 제어 장치에 의해 자동적으로 아웃플로어 밸브가 열리고 닫히면서 객실 기압이 조절된다.

* psi: 기압의 단위.
* fpm: 1분당 변화하는 객실 고도를 나타낸 단위.

33. 뒷글의 내용과 일치하는 것은?

- ㉠ 객실 고도를 높이는 데 한계가 있는 것은 인간의 신체적 조건 때문이다. *인간이 보조장치없이 활동*
- ㉡ 동차압 모드는 동압 모드와 달리 활성화 단계에서 조종사의 조작을 필요로 한다. *일정수치에 이르면 자동으로 전환*
- ㉢ 아웃플로어 밸브는 환기 시스템에서 공기를 배출하는 역할을 하는 유일한 장치이다. *'공기를 배출하는 장치 중 하나이다.'*
- ㉣ 제트 엔진은 고온·고압 상태에 있는 블러드 공기를 분출시켜 추진력을 얻는 엔진이다. *블러드공기=압축공기. 블러드공기에 연료를 분사하여*
- ㉤ 아웃플로어 밸브를 적절하게 열고 닫는 객실 기압 제어 장치는 수동으로 조작하게 되어 있다. *컴퓨터로 이루어져서 발생한 기체를 분출하는 것. 자동조절가능*

동압모드, 여압시스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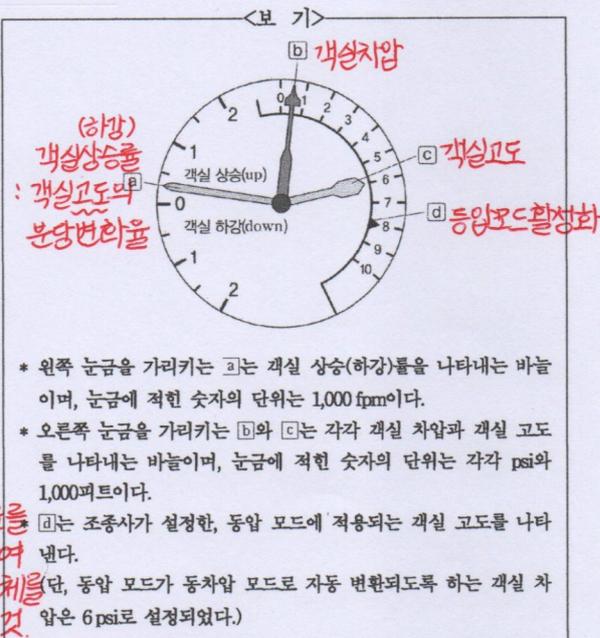
34. ㉠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 조종사가 ㉠을 활성화하지 않아도 블러드 공기를 활용한 환기 시스템이 가동될 수 있다. *여압시스템의 작동여부와 무관*
- ㉡ 조종사가 ㉠을 활성화하는 것은 통상 항공기가 이륙하여 해발 5천 미터 정도의 고도에 이르렀을 때이다.
- ㉢ ㉠으로 최대 운항 고도에서 날고 있던 항공기가 이상 기류를 피하기 위해 급강하하면 동차압 모드로 자동 변환될 수 있다. *급강하→외부기압 올라감, 객실차압↓이므로 동차압모드 작동*
- ㉣ ㉠에 적용되는 객실 고도가 8천 피트라면 객실 기압이 10.9 psi가 되어 유지되도록 객실 기압 제어 장치가 작동할 수 있다.
- ㉤ ㉠으로 2만 피트 상공에서 날아가는 항공기의 승객들이 갑작 증을 겪지 않는 것은 객실 기압이 지표면과 비슷하기 때문이다.

35. 객실 차압에 대해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 객실 차압이 높을수록 항공기의 동체가 외부로부터 받는 압력이 커진다. *내부에서 밖으로 작용하는 압력*
- ㉡ 항공기가 일정한 고도에서 운항 중일 때 객실 고도를 낮출수록 객실 차압이 낮아진다. *객실고도 낮추면 객실내외기압증가, 객실차압증가*
- ㉢ 항공기가 고도를 높이는 도중에 공기를 배출하는 밸브가 열리지 않으면 객실 차압이 감소한다. *객실내외기압은 일정, 외부기압감소→객실차압증가*
- ㉣ 단거리 민간 항공기의 경우는 동차압 모드로 자동 변환되도록 하는 객실 차압이 6psi보다 클 것이다. *견딜수있는 객실차압 더 낮다(덜튼)*
- ㉤ 항공기가 견딜 수 있는 객실 차압의 한도를 높이는 것은 연료 효율에 두 가지의 상반된 영향을 동시에 미칠 수 있다. *1) 한도↑→운항고도높일수있다→연료효율↑
2) 한도↑→항공기더무겁게 만들어야→연료효율↓*

36. <보기>는 민간 항공기의 조종석 계기판을 도식화한 것이다. 뒷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3점]



* 왼쪽 눈금을 가리키는 ㉠은 객실 상승(하강)률을 나타내는 바늘이며, 눈금에 적힌 숫자의 단위는 1,000 fpm이다.
* 오른쪽 눈금을 가리키는 ㉡와 ㉢은 각각 객실 차압과 객실 고도를 나타내는 바늘이며, 눈금에 적힌 숫자의 단위는 각각 psi와 1,000피트이다.
㉣은 조종사가 설정한, 동압 모드에 적용되는 객실 고도를 나타내며, 동압 모드가 동차압 모드로 자동 변환되도록 하는 객실 차압은 6psi로 설정되었다.)

- ㉠ ㉡가 0의 위쪽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아 항공기의 객실 기압이 상승하는 증임을 알 수 있겠다. *객실고도가 증가→객실기압하강(외부기압> 내부기압)*
- ㉡ ㉢가 0의 오른쪽을, ㉣가 6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아 항공기의 현재 고도가 해발 6천 피트보다 낮다는 것을 알 수 있겠다. *객실기압-외부기압> 외부기압이 더 낮으므로 고도가 더 높다.*
- ㉢ 동압 모드가 활성화된 상태라면, ㉣가 ㉡에 이를 다음에는 항공기가 상승하는 도중에 ㉣가 0을 가리키는 경우가 없겠다. *동압모드활성시 객실고도 거의변하지*
- ㉣ 동압 모드가 활성화된 상태라면, ㉢가 6을 가리키는 순간 동차압 모드로 변환되고 나서는 ㉣가 8보다 큰 숫자를 가리키는 경우도 생길 수 있겠다. *동차압모드가 되고 비행기 고도가 높아지면 객실고도가 같이 높아질 수오, c가 높아질수 있다.*
- ㉤ 동압 모드가 활성화된 상태이고 ㉡가 계속 0.5 이하의 눈금을 가리킨다면, ㉣가 ㉡에 이를 때까지 항공기의 실제 고도는 1분에 500피트 이상 상승하지 않겠다. *항공기의 실제고도와 '객실고도'의 변화량은 무관*

반복에 지치지 않는 자가 반드시 성취한다.

우리 학생들의 학습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분석지 제작진 일동